

# 한국 YWCA

2017년 1·2월호  
January · February  
Vol.537

**이달의 생각**  
YWCA를 사랑하는 용기

**말씀묵상**  
'종교개혁' 기본정신으로 돌아가자

**기획**  
2017년도 정기총회

**청년**  
18세 참정권 실현 운동





## ‘가족법 개정’ 기반 다진 제31대 회장 김갑순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자신이 혜택받은 사람이라는 걸 느껴야 합니다. 가정과 직장을 지키는 외에 내가 받은 혜택을 사회에 되돌리는 길로 택한 것이 YWCA 활동이었습니다.”

김갑순(1914~2005)은 특혜를 받은 여성으로서 여성들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YWCA와 이화대학에서 평생을 보냈다. 그 책임감은 일생동안 그를 지탱해주는 힘이었다. 제31대 대한YWCA연합회(지금 한국YWCA연합회) 회장, 이화여대 문리대학장, 한국세익스피어학회 이사를 역임한 여성운동가이자 국내에 영어연극을 도입한 1세대 영문학자다.

아버지 김일선은 대한YMCA 초대이사로 물산장려운동을 펼친 이상재, 윤치호, 양주삼 등과 함께 일제시대 민족독립을 위해 사회사업을 벌였으며 어머니 윤종애는 서울YWCA 초대 이사를 지냈다. 어려서부터 YWCA 활동을 지켜보며 자란 그는 이화여고, 이화여전 시절 학생YWCA 임원으로 활동했다. 이화여전 졸업 후 1938년 유학을 갈 수 있던 것도 YWCA 덕분이었다. 미국 앨라배마주립대학 YWCA가 국제교류를 위해 동양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던 것이다. 앨라배마주립대학과 스탠퍼드대학에서 연극과 희곡을 전공했다.

김갑순은 일제강점기 시절 여성교육만이 구국의 길이라는 생각으로 1948년 YWCA 활동을 시작해 1954년 연합회 국제친선부 위원장, 1982년 제31대 대한YWCA연합회 회장이 되었다. 연합회 회장 재임 당시 호주제 폐지를 근간으로 한 가족법 개정운동에 앞장서 1991년 호주제가 대폭 개선된 가족법 개정 시행의 기반을 다졌다. 그는 훗날 “가족법 개정에 YWCA가 큰 역할을 담당한 것이 가장 보람있던 일이었다”고 회고했다.

2017. 1·2

# 한국YWCA



### 표지이야기

2017년도 정기총회에 참여한 Y-틴과 대학·청년Y 회원 <사진 안정희>

### 2017년 1·2월 주요일정

#### 3월 7일

제150차 및 후쿠시마 6주기 '불의날 캠페인'

#### 3월 10일~20일

2017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 3월 16일

제1차 전국사무총장협의회

#### 3월 29일~31일

YWCA 1단계 실무자교육

### 제53권 제1호 통권 53호

2017년 2월 23일 발행 (등록번호 라-746)

발행 (사)한국YWCA연합회

발행인 이명혜 | 편집인 유성희

홍보출판위원회 박수경·백혜진·신선·정린·정선경

조하나·이경순·최수경·황혜숙

편집 박은실·신미희·정서연

발행처 서울 중구 명동길 73 (사)한국YWCA연합회

디자인 굿플러스커뮤니케이션즈(주) 02)6080-9858

인쇄 (주)신사고하이테크 031)989-0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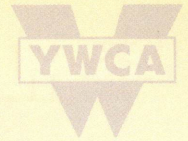
전화 02)774-0230 | 팩스 02)774-9724

홈페이지 www.ywca.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ywca Korea

구독료 연간 2만원 (총 10권)

계좌번호 농협 386-17-000052 한국YWCA연합회



## 한국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 목 차

04 **말씀 묵상** '종교개혁' 기본정신으로 돌아가자 | 임성빈

05 **이달의 생각** YWCA를 사랑하는 용기 | 유성희

### 기획 2017 한국YWCA 정기총회

06 **기획①** 2017년도 정기총회 현장 | 편집실

08 **기획②** YWCA 2017년 주요사업 | 편집실

10 **기획③** 세상을 바꾸는 1분 | 편집실

12 **성평등** 성평등 사회를 위한 헌법개정에 나서자 | 김은경

14 **청년** 결혼, 입대, 취업, 면허는 되는데 투표는 안돼? | 김지은

16 **인터뷰** '고의순나눔기금' 기부한 이봉진 박사 | 편집실

18 **이달의 현장①** 대학·청년Y 재건 1년, Y와 함께 성장하다 | 대학·청년Y 운영위원

20 **이달의 현장②** Y-틴 전국협의회 일본군 '위안부' 특강 | 편집실

22 **이달의 현장③** 나는 왜 화요일마다 명동을 찾아오나 | 박상현

24 **원로에게 듣는다** 임경숙 마산YWCA 명예이사 | 편집실

26 **크리스천의 눈으로 보는 문화** 영화 '미씽: 사라진 여자' | 김상은

28 **연합회 소식**

30 **회원YWCA 소식**

38 **3월의 한국YWCA**

# ‘종교개혁’ 기본정신으로 돌아가자



임성빈

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기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 2018년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70주년,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이 됩니다. 다 역사적 함의를 지닌 해인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먼저 2017년을 허락하셨을까요? 지금 이 불안한 사회 가운데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주께 영광’이라는 종교개혁 기본적인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민족과 세계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한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으로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을 쓴 리처드 니버는 “모든 문화는 하나님의 주권에 기초한 신 중심적 관점에서 변혁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열려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삶을 축복해주셨는데 우리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런 문화를 만들었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뿌리라면 뿌리에서 뻗어 나온 줄기가 삶이고, 이 삶에서 맺히는 것이 문화입니다. 즉 열매로서의 문화인데 이 사회가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이 믿음에서 나온 가

치로 어떤 삶을 살아내는지에 대한 표현으로 나타난 것이 문화입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자들은 왜 ‘오직 믿음’을 말했을까요? 물질과 권력이 당시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이런 거짓 가치를 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오직 믿음’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공허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선물로 주신 것이 ‘말씀’입니다. 믿음은 말씀과 함께 가야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오직 믿음’이고, 이 믿음대로 살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며, 십자가에서 고통받으며 희생할 수 있는 섬김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닮아야 할 표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인은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유혹받을 때 이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지만 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기에 성령충만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한 올해 한국YWCA가 하나님의 기관으로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성령충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이 땅에 평화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 YWCA를 사랑하는 용기



유성희

한국YWCA연합회 사무총장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지 2017년이 되었다. 기독교가 세계사에 미친 영향은 막대하다. 기독교는 신에 대한 개념과 인간의 삶에 대한 개념을 모두 바꿨다. 인간 위에서 군림하던 신과는 달리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인간을 위해 희생하는 신이다. 이전의 인간은 죽음 앞에서 삶의 허무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부활과 영생은 인간이 불안하게 여겼던 삶과 죽음의 의미도 변화시켰다.


무엇보다 기독교가 끼친 영향은 인간 사이에 평등의 개념이 생겨난 것이다. 열등한 존재로 간주되었던 여성이 남성과 평등한 존재로 여겨졌다. 가난한 자, 비천한 자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다는 놀라운 가르침이 예수를 통해 전파되었다. 각 나라의 평등사상이나 노예제 폐지운동, 그리고 국가간 전쟁방지를 위한 유엔의 창설도 기독교 신앙의 기초로 가능했다. 세계적으로 퍼져간 문명전환의 기독교 역사로 보면 한국의 시민운동과 여성운동이 기독교 사상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예수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다. 예수도 인간이었다. 짧은 인생을 살았고, 다른 인간들과 다르지 않은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의 죽음은 초라했고, 그가 죽은 직후 세상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는 그와 함께 있던 제자들을 변화시켰고, 예수를 배반했던 제자들이 순교도 불사하는 강인한 사람들로 변화되었다.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침묵>의 저자인 엔도 슈사쿠는 <예수의 생애>에서 이렇게 말했다. “만일 우리가 성서를 예수 중심이라는 일반적인 관점이 아니라 제자들을

주인공으로 해서 읽으면 그 테마는 단 하나, 겁쟁이, 비겁자, 몹쓸 인간이 어떻게 해서 강한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에 귀착된다. 더불어 그 불가사의한 제자들의 변화의 원인이야말로 성서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테마이자 수수께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핍박을 기뻐하며 받아라, 원수를 사랑하라, 크고 화려한 길이 아니라 좁고 험한 길을 가는 것이 예수의 길이다. 예수는 자신을 배반한 사람도 정죄하지 않았고, 오히려 남겨진 사람들을 걱정했다.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하나님나라가 예수의 삶에 들어왔다는 고백이었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한국YWCA는 올해로 창립 95주년을 맞았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규모가 큰 여성운동체다. 지난 역사에서 한국YWCA가 사회에서 좋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던 것은 기독교적 영성이 있기 때문이다. YWCA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존재한다. 이것은 예수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나라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비신앙적인 모습을 회개하고, 성찰하고, 예수의 가르침을 정직하고 정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예수와 함께 가는 YWCA 역사는 세상과 YWCA가 새롭게 태어나는 축제,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는 축제다. 

# 신고리 5·6호기 백지화하고 기후변화대응 성인지정책 세운다

창립 95주년을 맞이한 YWCA는 올해도 탈핵생명운동, 성평등운동, 평화통일운동, 청소년운동, 돌봄정의운동을 중점운동으로 지속할 것을 결의했다. 한국YWCA연합회는 2월 7일(화)부터 8일(수)까지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전국 52개 회원 YWCA 회장, 사무총장 등 대표를 비롯해 연합회 실행위원, 실무활동가까지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정기총회를 열었다.



하루 먼저 도착해 1박2일 연수를 끝낸 회원YWCA 신임 회장 20명이 합류하면서 정기총회 막이 올랐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대표들과 연합회 실행위원들의 ‘만남과 환영’ 뒤 개최예배가 시작되었다. 이명혜 한국YWCA연합회 회장의 인도, 이서영 Y-틴 전국협의회 회장의 성경봉독, 채수일 경동교회 담임목사의 말씀선포가 이어졌다. 채 목사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는 설교를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기독교여성단체인 YWCA 회원들에게 우리 시대 참된 기독교인으로서 성찰을 당부했다.

“○○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를 주제로 회원YWCA 소망을 발표하는 ‘세상을 바꾸는 1분’은 YWCA 가치와 운동을 담은 재치있는 메시지로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함희경 연합회 실행위원과 박은실 연합회 정책기획국장의 사회로 진행

되었으며, 몸풀기 체조와 퀴즈로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다.

다음으로 경제학자 출신의 남북경제협력 전문가인 김주현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장이 ‘한반도 통일,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특강에 나섰다. 김원장은 이미 교류조차 단절된 상황이지만 거시적 측면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길을 모색하자고 강조했다.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 긴급구호 등 다양한 민간교류가 평화적인 통일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특히 산모, 영유아 등 북한 취약계층과 탈북민 지원에 YWCA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이튿날 사무회의는 의장인 이명혜 연합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전날 지역위원회에서 선출된 김성아(수원 YWCA) 경기지역위원장, 유영은(대구YWCA) 동부지역

## ‘희망 세상’을 새롭게 열어가고자 합니다



이명혜 한국YWCA연합회 회장

YWCA 운동정책과 운영정책의 실행을 위해 연합회와 회원YWCA가 협력하여 수행한 활동을 축하하고 격려하며, 2017년 활동계획과 규정 등을 승인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아 총회에 참석하신 대표들을 환영합니다. 2016년 한해 우리 회원들은 지역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소외되고 아픈 이웃이 없는 건강한 시민사회 확장이라는 사회선교 과제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웃과 사회를 위해 헌신해주신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 한국YWCA 창립 95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95년 역사에 대한 성찰, 고백, 회개 속에 100년을 앞둔 한국YWCA 설립목적을 되새기고 앞으로 그 목적이 이어지도록 시대책임이 깊어 인식하는 시간을 회원들과 나누며 ‘희망 세상’을 새롭게 열어가고자 합니다. 회원들과 열심히 소통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며 협력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시시오



2017년도 정기총회 사무회의 모습



신임 5부지역위원장이 선서를 하고 있다.

위원장, 조종남(서울YWCA) 북부지역위원장, 강선임(순천YWCA) 서부지역위원장, 지옥정(청주YWCA) 중부지역위원장 등 5부지역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2016년 감사보고, 결산보고, 사업보고에 이어 토의안건으로 △회원YWCA 관련규정 개정 △회원YWCA 상호협조금 조정 △2017년 사업계획과 예산승인(약 38억6천만원)을 처리했다. 또한 탈핵운동의 지속성을 위해 하선규 부산YWCA 직전회장을 YWCA 탈핵운동대사로 위촉했다.


### '성찰, 회개, 고백' 95주년 기념식 개최

YWCA는 2017년 주요과제로 △95주년 기념행사와 특별사업 △대선 의제화 활동 △YWCA 운동의 대중성 확대를 위한 홍보강화 △탈핵생명운동과 성평등운동 집중 △2018~2019년 정책수립과 100주년 비전 구체화를 위한 조사연구 △YWCA 운동 지속성을 위한 리더십 확보와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2013년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탈핵 불의날 캠페인'을 벌이며 중점운동으로 전개하는 탈핵생명운동의 경우 올

해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를 목표로 탈핵캠페인, 탈핵교육, 서명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성평등운동은 여성주의 관점의 기후변화대응 성인지정책 마련에 적극 나선다.

올해를 '정의운동의 해'로 정한 YWCA는 1922년 설립 목적을 오늘에 되새겨 그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해왔는지 되돌아보는 '성찰, 회개, 고백'의 창립 95주년 기념식을 4월에 연다. 하나님과 역사, 시민 앞에 YWCA가 걸어온 길을 성찰하고 반성하고 고백하는 과정을 통해 '정의, 평화, 생명'의 가치가 이어질 수 있는 시대적 책임을 인식하자는 취지다.

YWCA는 3월 1일부터 여성의 삶과 역사적 책임, 하나님의 선교라는 사명에 대한 회개와 고백, 다짐을 하는 'YWCA 95일 기도회'를 연다. 전시 성폭력을 반대하고 평화세상을 향한 여성들의 염원을 담은 (가칭) '평화비' 건립을 추진하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YWCA 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청년성과 자발성에 근거한 기독교여성운동으로서 초기정신 회복을 강조하고, 100주년을 향한 YWCA 청년정신을 지닌 젊은 리더십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Y피스보트'를 추진한다. 



### 회원YWCA 신임 회장

광양YWCA 김강임	제천YWCA 김숙자	수원YWCA 김성아
양산YWCA 허영미	사천YWCA 정경숙	춘천YWCA 허미순
광주YWCA 민혜원	진주YWCA 김성이	안동YWCA 이기자
울산YWCA 서정순	성남YWCA 오복순	충주YWCA 박영옥
동해YWCA 구애심	창원YWCA 신옥희	안산YWCA 양애자
인천YWCA 박소영	속초YWCA 이리자	파주YWCA 허해숙
부산YWCA 홍순옥	천안YWCA 문진숙	포항YWCA 전점숙

# 정의, 평화, 생명을 향한 YWCA 행진은 계속된다

## 핵심과제

- 95주년 기념행사와 특별사업 통합실행
- 대선 의제화 활동
- 대중성 확대를 위한 홍보강화
- 탈핵생명, 성평등운동 집중
  - 탈핵생명 :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 성평등 : 기후변화대응 성인지정책 마련
- 2018~2019 정책수립
- 100주년 비전구체화를 위한 조사연구
- YWCA운동 지속성을 위한 리더십 개발
-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 확충

## 95주년 기념사업

- YWCA 95일 기도회
- 95주년 기념예배
- 95주년 기념식(전국회장단 연찬회, YWCA가 뽑은 좋은 TV프로그램상 시상식 연계)
- 평화비(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
- 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편
- 100주년을 향한 Y피스보트 추진
- YWCA 심포지엄
- 가치나눔을 위한 문화공연
- 청소년인권, 성평등 인식 개선



## 기반사업

- **행사** : 정기총회, 95주년행사, 월레아침기도회, 기념예배, 한국YWCA정책협의회
- **100주년 기념사업** : 디지털자료실 구축
- **홍보출판** : 간행물 발행(월간, e-뉴스레터), 홈페이지 운영, 청년기자단 운영, 언론홍보, 이미지디자인 개발, YWCA가 뽑은 좋은 TV프로그램상
- **국제협력** : 젊은글로벌리더십 프로그램 'Y피스보트' 기획, CSW 파견지원, 국제연대, YW/YM 국제친선 및 기도주간, 한일Y 협의회 후속활동, 유엔NGO컨퍼런스 기획
- **회원Y 협력지원** : 회원Y 기반강화 전략수립, 회원Y 감사 지원, 전국사무총장협의회 지원, 회원Y 조정, 회원Y 행정 지원
- **Y아카데미** : 교육(실무자, YWCA 여성주의), 연수(중견실무자, 신입사무총장, 신입회장, 지역위원장, 실행위원, 신입이사), 지역센터 운영지원, 연구모임 및 활동가 연수
- **생명비전연구** : 여세 발간, YWCA 기독교여성주의 연구, 여성운동 회원인식조사, 웹진 발행

## 목적사업

- **탈핵생명운동** : 탈핵 불의날 캠페인, 신고리5·6호기 백지화, 대신 탈핵의제화, 연대활동
- **성평등운동** : 기후변화대응 성인지정책 마련, 성폭력예방 강사 양성, 여성폭력관련시설 네트워크, 여성 국제연대
- **평화통일운동** : 대북인도지원, 온라인모금 체계 구축, 북한 Y재건준비, 북한어린이돕기 모금, 연대활동
- **대학·청년Y** : 운영지원(전국협의회, 운영위원회), 대학·청년Y전국화원대회, 4부지역네트워크, Y청년 열린이카데미, 교재개발과 교육
- **청(소)년운동** : Y-틴 회원조직 운영지원(전국협의회, 활동가교육), 청소년운동 활성화, 키다리학교
- **돌봄운동** : 가사노동자 제도개선, 협동조합 시범회원Y 지원, 협동조합스쿨, 평생교육시설 등록, 돌봄서비스 표준화, 교육과정 개발,
- **특별사업** : 청소년금융교육 씽크머니, 다문화시대 청소년 직업교육 다래교실, 한국여성지도자상, 생명꿈나무돌봄센터, 소비자지원



# 우리는 '그'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강릉Y 국민이 주인인 나라



김해Y 탈핵 나라



마산Y 사람과 자연이 많은 나라



서천Y 노후 걱정 없는 나라



가제Y 희망찬 나라



남원Y 정의와 평화의 나라



목포Y 청소년이 행복한 나라



성남Y 존경받는 지도자가 있는 나라



경주Y 원전 없는 나라



논산Y 희망 가득한 행복 나라



부산Y 핵 없는 안전한 나라



속초Y 건강한 나라



고양Y 상식이 통하는 나라



남양주Y 상식이 통하는 나라



부천Y 핵 없는 나라



세종Y 창조질서가 회복된 나라



광명Y 정의와 공평의 나라



동해Y 모두가 행복한 나라



사천Y 핵 없는 안전한 나라



수원Y 신뢰가 살아있는 나라



광양Y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나라



대구Y 진실이 기본인 나라



서귀포Y 성평등한 나라



순천Y 핵발전소 없는 나라



광주Y 안전한 나라



대전Y 핵으로부터 안전한 나라



서울Y 평화통일을 이루는 나라



안동Y 노련한 만큼 열매 맺는 나라

2017년도 정기총회에서는 "OO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를 주제로 올해 회원YWCA 소망을 담아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세상을 바꾸는 1분 스피치'를 진행했다. 52개 회원YWCA 대표들과 연합회 실행위원들은 각자 특색을 살린 발표로 YWCA가 지향하는 가치, 운동, 정신을 표현했다. 재치와 웃음, 감동의 메시지로 모두가 하나되는 시간이 되었다.



**안산Y**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한 나라



**익산Y** 거룩하고 정직한 나라



**진주Y** 억울한 사람이 없는 나라



**충주Y** 약자와 강자가 함께 평화로운 나라



**안양Y** 핵 없는 통일된 나라



**인천Y** 평화로운 나라



**진해Y** 핵발전소 없는 나라



**통영Y** 차별 없는 나라



**원주Y** 창조 질서가 회복된 나라



**의정부Y**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창원Y** 관용의 나라



**파주Y** 휴전선 없는 나라



**양산Y** 사랑과 평화의 나라



**전주Y** 편 가르치지 않는 나라



**천안Y** 감동을 주는 나라



**포항Y** 하나님 뜻에 따라 신명나는 나라



**여수Y** 52개 회원Y가 꿈꾸는 좋은 나라



**제주Y** 상식이 통하는 나라



**청주Y** 조화롭고 평화로운 나라



**하남Y** 정직한 나라



**울산Y** 정의와 평화의 나라



**제천Y** 절로 신나며 살맛나는 나라



**춘천Y** 성실하게 일한 만큼 대우받는 나라



**군산YWCA** 청소년 참여권이 있는 나라

실행위원



함화경 세대간 갈등 없는 나라  
 김기동 함께 살맛나는 나라  
 한미미 남북이 하나된 나라  
 김은경 남녀 동등한 나라  
 이은영 돌봄 가치가 존중 받는 나라  
 이영희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

이명혜 통일된 나라  
 문권희 기부가 즐거운 나라  
 김경희 진실한 나라  
 조은영 자유로운 나라  
 원영희 탈핵생명이 이루어지는 나라  
 한영수 생명의 바람이 부는 나라

백해진 청년이 희망을 품고 살 수 있는 나라  
 정미란 서로 믿을 수 있는 나라  
 전배자 평화통일이 이루어지는 나라  
 김태연 건강한 나라  
 김영자 청소년에게 희망이 있는 나라  
 최형선 감사하는 나라

# 성평등 사회를 위한 헌법개정에 나서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각계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시민단체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한국YWCA, 한국YMCA, 경실련, 참여연대, 개헌여성연대, 지방자치단체협의회 등 1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김은경

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위원회 위원장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20대 국회가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월 5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지난해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가시화된 개헌 논의는 1987년 9차 개정 이후 30년만이다. ‘인류의 평화와 건강한 사회, 풍성한 생명살림으로 평등한 하나의 세상’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YWCA 시선으로 살펴본 헌법은 어떤 상태인가?


우리 헌법은 제헌헌법에서부터 성별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2조 제4항, 제34조 제3항, 제36조 제1항과 제2항 등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금지, 여성근로에 대한 특별보호, 여성복지 향상, 양성 평등한 혼인 및 가족생활과 모성보호 등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성에 근거한 차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걸쳐 구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결국 저출산이란 예견된 위기를 초래했으며 고령화, 양극화와 함께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법 앞의 평등과 성별에 따른 차별조항 금지’만으로는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할 수 없다. 여전히 여성을 특별한 보호나 배려가 필요한 수동적인 정책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 국민주권 원리가 실현되는 민주공화 사회는 보장되지 않

는다. 헌법은 어제가 아닌 오늘을 살고 있는 주권자를 위한 기본원칙이어야 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지향적 가치와 비전이 담겨야 한다.

새로운 헌법은 △실질적 성평등을 보장하고 △공직진출에 남녀동등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여성의 불평등한 경제·사회적 지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정치참여 보장과 대의민주주의 원칙이 실현되어야 하고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며 국가가 이를 보장하고 △사녀양육도 국가지원이 보장되어야 하며 △모든 사람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헌법에 명시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권자가 참여해 만드는 ‘모두에 의한, 모두를 위한’ 헌법이어야 한다. 여성과 남성, 아동과 청소년, 청년과 노인, 장애인과 이주민의 눈으로 그리고 이 땅에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체의 눈으로 봤을 때 ‘정의 평화 창조 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위한 헌법이어야 한다. 그러나 33명 개헌특위 의원 중 여성은 2명에 불과하다. 53명 자문위원 중 여성은 8명뿐이다. 10만 회원의 YWCA가 나서야 할 때다. YWCA 참여로 탈핵사회로 가는 변화가 더욱 확대되었듯 성평등 사회를 향한 헌법개정도 YWCA 힘으로 앞당길 수 있다. 지금 헌법을 읽어보자. 그리고 의견을 나누자.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 여 \* 세

2017년 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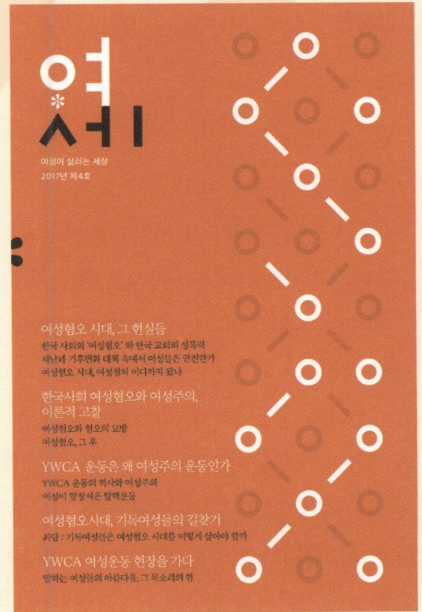
여성이 살리는 세상  
여성이 만드는 좋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여세!

- 여성혐오 시대, 그 현실들
- 한국사회 여성혐오와 여성주의, 이론적 고찰
- YWCA 운동은 왜 여성주의 운동인가
- 여성혐오시대, 기독교성들의 길찾기
- YWCA 여성운동 현장을 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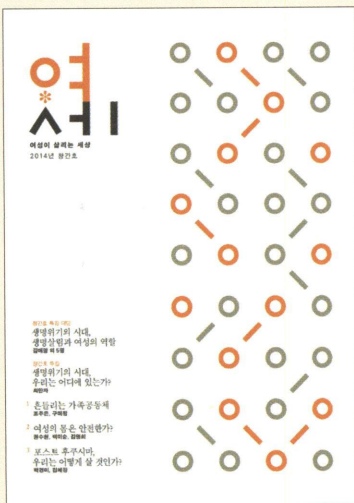
**구입문의** YWCA 생명비전연구소 031-313-9315

ywcapr@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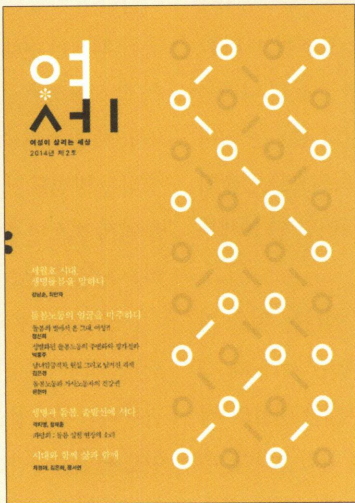
**가격** 1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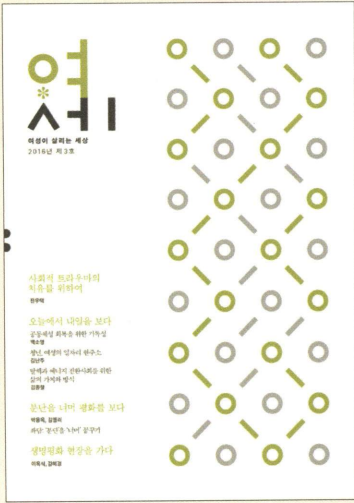
**2014년 1호**  
생명위기의 시대, 생명살림과 여성의 역할



**2014년 2호**  
세월호 시대, 생명돌봄을 말하다



**2016년 3호**  
분단을 넘어 평화를 보다



# 결혼, 입대, 취업, 면허는 되는데 투표는 안돼?

김지은

군산직할지부 Y-틴

## 청소년 선거권 있는 나라들

저는 이 글을 시작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만 18세가 되면 군대도 갈 수 있고 운전면허도 딸 수 있으며 결혼과 취직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투표권, 참정권은 가질 수 없는 것일까요?

청소년은 생각이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른들이 만들어낸 고정관념일 뿐 성숙과 미성숙을 나이로 구별하는 것은 이제 그만 두어야 할 세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역시 정치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다양한 가치관을 세상에 논리정연하게 펼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들을 대표하여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한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얻기 위해서 18세 참정권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8세 참정권뿐 아니라 더 어린 청소년에게도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스트리아, 브라질, 쿠바 등의 나라는 16세부터 미국과 일본, 영국 등의 나라는 18세부터 선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이미 2002년 안나 뤼어만이라는 청소년이 국회의원으로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만 19세부터 선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바른 정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 가장 앞장서서 탄핵을 외쳤고, 우리나라의 부패한 관료와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갔습니다. 우리의 정치관은 열려 있고 한계가 없기 때문에 부패한 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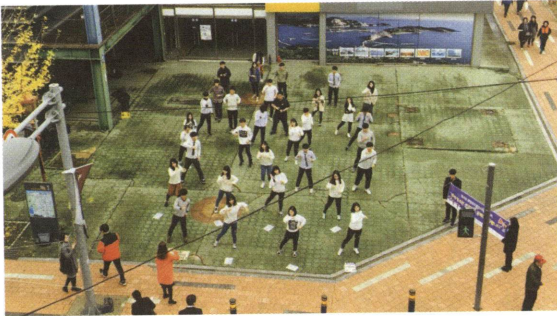
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8세 선거권 획득을 통해 나라를 정의롭게 이끌어 나갈 후보를 청소년인 우리가 선출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진선미·소병훈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18세 투표권에 대한 법안발의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꼭 법안이 통과되어 청소년들의 선거권한이 부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그저 어른스러운 생각을 한다구요?

18세 참정권 획득을 위해 필요한 첫 번째는 청소년과 어른 모두 고정관념을 경계하고 소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도 성숙한 정치관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리드하는 주체자로서 역할이 가능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방법으로 SNS를 통한 캠페인 진행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고령인 분들은 SNS를 잘 사용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18세 참정권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하는 방법도 제안합니다. 피켓을 들고 집회를 하거나 사람들에게 청소년 참정권에 대해 설명하고 서명운동으로 소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군산직할지부에서는 몇몇의 Y-틴과 함께 18세 참정권 SNS 캠페인도 진행하고 지난해 11월 19일(토) 군산 원도십관광지역에서 청소년자치연구소 청소년들과 플래시몹 캠페인도 펼쳤습니다. 18세 참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며 동영상 촬영도 하고 차



청소년 참정권을 꿈꾸다 지난해 11월 19일 이성당 앞에서 펼친 플래시몹



군산직할지구 Y-틴이 청소년자치연구소와 시민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를 세우고 캠페인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이분들의 응원과 지지가 기쁘기도 했지만 우리를 기특하게 봤다는 점에서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권리를 얻기 위한 운동을 그저 어른스러운 생각을 하는 청소년으로만 바라보는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일은 청소년들끼리의 연대입니다. 전국 52개 YWCA에서 활동하는 Y-틴부터 청소년 참정권에 관심을 갖고 지역과 네트워크를 통해 연대하기 시작한다면 이 운동을 훨씬 더 크게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들끼리 참정권에 대한 이슈를 공론화하고, 정보가 부족한 친구들에게 알리고 토론하며 한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청소년은 정치에 더욱 관심을 갖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청소년 참정권 이슈가 대두되며 여러 청소년 단체에서 운동이 시작되었지만 전국으로 확산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청소년 참정권 운동 주체가 청소년이 아닌 청소년단체 활동가인 어른들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년 간 충분한 소통과 연대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미래의 국가를 올바르게 만들어갈 정치인을 선출할 권리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공유하기를 바라고, YWCA 청소년들이 우리 미래는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지가 발휘되


기를 희망합니다.

### 미래를 이끌어갈 '시민 청소년'

청소년들도 한 국가의 주권을 지닌 국민일 뿐만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으며 살 권리가 있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18세 참정권 운동을 하고 있는 많은 청소년들은 어른들이 우리를 더 이상 어린 아이로만 보지 않길 바랍니다.

지난 1월 18일 국회에서 청소년 참정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이 토론회에 참여하면서 우리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고자 하는 청소년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은 쿤트와 악기연주,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날 국회 토론을 마치고 Y-틴 전국협의회가 열린 버들캠 프장으로 갔습니다. 이곳에서도 많은 친구들과 '청소년 인권'을 주제로 토론하고 발표했는데, 청소년들은 참정권뿐 아니라 노동권, 교육 등 여러 가지 청소년 인권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만난 청소년은 이미 아이라는 굴레를 벗어 나 날개를 펴고 날기를 희망하는 시민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이끌어갈 현재의 시민입니다. 우리가 유권자이자 한 국가의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YWCA & 18세선거권공동행동네트워크 "청소년 참정권 요구한다"

18세 선거권, 오래 전부터 해결하지 못한 과제다. 이제 시민단체와 정부는 청소년의 목소리에 반응해야 한다. 청소년이 국가와 사회서비스의 수혜자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자 주체자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국YWCA연합회는 지난해 11월부터 '18세선거권 공동행동네트워크'와 연대하여 청소년 참정권 실현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양한 간담회, 토론회, 캠페인 등을 전국에서 펼치고 있다.

# 떠난 아내, 영원히 기억되게 하고 싶어

진행 장미란 한국YWCA연합회 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정리 편집실



YWCA에서 청소년위원, 버들캠프장 운영위원, 은학의집 운영위원으로 30여년 헌신한 고의순 선생이 2016년 세상을 떠났다. 가족들은 슬픔 속에서도 1억5천만원의 '고의순나눔기금'을 YWCA에 기부했다. 해마다 240만 원의 장학금도 후원한다. 큰딸 이윤지씨는 Y-틴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고의순 선생과 깊은 교분을 나누은 장미란 평화·통일위원장이 고 선생의 남편 이봉진 박사를 만났다. 한국과학기술원 출신으로 한국정밀공학회 초대회장을 지낸 이 박사는 세계 최대 자동차기업체 일본 화낙에 스카웃될 정도로 공장자동화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생전 고의순 선생의 모습

## 백합처럼 낮은 곳에서 봉사하던 아내

“지금은 공부하는 중이라서 아무 것도 가진 게 없지만, 당신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 절벽에서 떨어질 자신이 생겼습니다. 나와 같이 모험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 병환으로 일본에서 잠시 귀국한 가난한 고학생 이봉진은 우연히 소개받은 여성 고의순에게 프러포즈를 한다. 미국 유학이 결정돼 비자 발급과 항공권 발권까지 마친 고의순. 좋은 사람 한번 만나보고 가라는 지인 권유에 가볍게 만났던 인연은 그녀 인생을 바꿔놓았다. 1964년, 고의순 스물넷에 이봉진 서른 하나의 나이였다.

고의순은 가까운 친구 장상(전 이화여대 총장)에게 “호텔 옥상에서 떨어지는 마음으로 결혼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서너 번 만나 뒤 ‘일생을 건 도박’을 결심한 두 사람은 그만큼 서로를 신뢰했다. 두 사람은 아들 하나, 딸 둘을 낳고 50년 넘게 잘 살았다. 그러나 지난해 53주년 결혼기념일은 함께하지 못했다. 동역봉사를 위해 한일YWCA협의회와 YWCA 전국회원대회에 참가했던 고의순은 귀갓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40여일 투병했지만, 결국 하나님 품으로 떠났다.

## 왜 이렇게 아내를 모르고 있었나

그로부터 이봉진은 온통 ‘아내’를 그리워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최근 아내와 추억을 담은 ‘백합 고의순 여사의 생애기록’을 펴냈다. 삶의 동반자이자 지적 대화의 동반자로 살았던 부부에게 속세의 이별은 간단할 수가 없다. 새벽 4시 30분에 아내가 깨어나면 같이 산책하며 자신이 읽었던 책, 과학, 음악, 미술 등 자신이 아는 내용을 요약해서 아내에게 이야기해주곤 했다. 주변의 속된 일로 이견을 나누는 일도 없었다.

“우리 사랑에는 올바른 것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다. 우리는 정의에 대해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 고유의 사랑을 해왔다고 자부할 수 있다. 아내가 나의 소중한 지적 대화의 동반자라고 항상 생각했지만, 실상 나는 그녀에게 내 시성(詩性)을 밝히고 늘 그런 이야기로 사랑을 고백해왔던 것이다. 나는 늘 아내와 연애를 하고 있었다.”

어릴 적 부모님이 재능에 신경을 썼다면 시인이거나 소설가가 되었을 것이라는 아내 얘기처럼 이봉진의 철학과 감성은 남다르다. 새벽 3시 반이면 깨어나 아내 없이 살아가야



1964년 결혼식 모습

할 삶을 생각하며 마음이 격해져 울곤 한다. 시로 표현하기에도 난필(亂筆) 여적(餘滴)하다. 홀로 산책 후 마음을 정리하며 시가 된 것이 40편이 넘었다. 인터뷰가 있던 날 아침에도 울다 나왔다.

아내에게 미안함을 느낄 때 그는 목

이 메었다. 알뜰하고 검소했던 부부. 외식을 할라치면 대개 7천원짜리 밥을 먹는다. 아내가 외식하겠냐고 물으면 그는 '항상 비빔밥만 시키니 싫다'고 했다. 그러면 아내는 웃으면서 '더 비싼 걸 먹을 줄 몰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럼 오늘은 당신이 내는 거지요?'라고 묻는다. 그럴 때 그는 "생활비 다 드리는데 왜 제가요?"라고 말했다. 절약하고자 그랬던 아내 마음을 몰라준 게 후회스럽다.

그는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것에 자신의 원죄가 있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가지 말라고 하면 절대 가지 않는 사람인데, 행사에 갈까 말까 하길래 "내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봉사는 좋은 일이니 다녀오세요"라고 했으며 눈물을 흘렸다. 비상금을 주니 필요 없다고 거절하면서도 기뻐하며 받아갔는데 그 돈도 고스란히 남겨 있었다.




이봉진 박사와 딸 윤지씨가 고의순 선생 사진을 보고 있다.

### 이제 아내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지

지금도 고의순 이름으로 자동이체된 1만원, 2만원짜리 후원금 내역이 온다. 평소 5,6천원을 따지며 아낀 돈으로 낸 것을 보며, 내가 이렇게 아내를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 나서 못살겠다"고 그는 말을 잊지 못했다. 그렇게 평생 어려운 사람을 돕고, YWCA에서 봉사한 고의순. 매일 새벽이면 산책하며 영어, 일어, 중국어를 공부하고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아내를 그는 '주부학자'라고 불렀다. 언제나 웃고, 사교적이고 유쾌하면서도 늘 남의 뒤에 서 있던 사람. 유능한데도 나서지 않고, 다른 사람을 격려했던 아내의 아름다운 마음을 기리고 오래 기억되기를 위해 이봉진은 장학기금을 만들었다.

처음엔 기념비를 생각했는데 자녀들이 장학기금을 제안했다. 사위가 "어머니 닮은 사람을 키우자"고 했고, 아들은 한술 더 떠서 "해마다 우리가 돈을 더 넣자"고 했다. 세월이 지나도 그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아내이자 어머니인 고의순이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녀들은 '어머니 장학금 재단' 통장을 만들었다. 1백년이 지나도 누군가가 고의순을 이야기하면, 고의순은 살아있다고 가족들은 믿는다. 그들이 떠나면 손자들이 이어가게 될 것이다.

이봉진은 아내 흔적이 주변 모두에게 아쉬움과 사랑을 받는 모습에서 키에르케고르가 쓴 책 <들의 백합, 하늘의 새>가 떠오른다. 화초로는 백합, 나무로는 자작나무, 동물로는 학. 그가 생각하는 아내 모습이다. 고운 마음과 인내심을 가진 백합과 같은 여성이었다. 그것도 높은 산바위틈에 외롭게 살아 숨쉬는 야생꽃 같은. 그는 아내 영정사진을 백합으로 장식하고 하늘나라로 보냈다.

이봉진은 YWCA 신년예배에 홀로 오면서 '들의 백합'처럼 낮은 곳에서 봉사해온 아내가 사실 YWCA 안에서는 즐겁고 보람있게 살았다는 걸 느꼈다. '그렇게 하얀 사람' 아내는 떠나고 나서도 남편을 빛내주고 있다. 미국에서, 일본에서, 한국 곳곳에서 고의순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이젠 그를 위로한다. 두 사람의 특별한 '사랑의 여정'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 대학·청년Y 재건 1년, Y와 함께 성장하다

2017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 총회가 1월 12일(목)부터 14일(토)까지 YWCA 버들캠프장에서 열렸다. 지난해 1월 전국협의회 총회를 시작으로 6년 만에 재건된 대학·청년Y 활동을 돌아보고, 올해 방향을 찾고자 2016 운영위원 소감을 정리했다. 대학·청년Y는 2015년 전국협의회 준비 TFT에서 회장 총무를 제외한 임원은 남성 회원도 선임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올해 중앙임원 6명 중 2명이 남성 회원이다.



## 손지수

대구YWCA, 2016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 회장,  
2017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 운영위원

대학·청년Y가 재건되어 행복하고 감사하다. Y·틴부터 활동한 나는 대학생이 되어서도 계속 YWCA 활동을 이어가고 싶었다. 그러나 대학·청년Y가 활동하고 있지 않아 속상했다. 그러던 중 2016년 대학·청년Y가 재건되었다. 지난해 YWCA 전국회원대회에서 대학·청년Y의 활동을 많은 회원들에게 보여주면서 ‘희망’을 말하는 자리를 가졌다. 작든 크든 대학·청년Y 이름으로 활동할 수 있어 즐거운 한해였다. 2017년, 시작하는 단계라서 뼈격거릴 수 있지만 성장하는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밑거름이라고 생각한다. 천천히 가더라도 뒤처지는 회원이 없도록 함께 갈 수 있는 대학·청년Y가 되도록 하겠다.

## 최선화

수원YWCA, 2016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 운영위원,  
2017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 회장

6년 만에 재건된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는 모든 회원들의 기대로 가득했다. 회장으로서는 부담도 되었지만 성장과 배움의 기회였다. 1년 동안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YWCA에서 더 크게 성장했다. 회의에서 발언도 제대로 못하던 내가 회의를 진행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할 수 있게 된 것은 청년들에게 아낌없이 배움의 자리를 마련해주는 YWCA 덕분이다. 대학·청년Y를 통해 나처럼 성장해가는 청년들이 많으면 좋겠다. 하나님 안에서 YWCA 청년성을 위해 더욱 활발히 활동하는 대학·청년Y가 되길 바란다.

## 정하연

광주YWCA, 2016·2017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 운영위원

광주지역 대표로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 운영위원이 되었을 때 ‘과연 내가 회원의견을 잘 대변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앞섰다. 각 지역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회의이자 6년 만에 재건된 전국협의회라 부담도 컸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는지 초반에는 회의가 수월하지 못했다. 하지만 회의

가 계속되면서 적극 의견을 내고 참여하는 회원들을 보며 동기부여가 되었다. 내가 제시한 의견으로 제안서를 만들면서 성장하고 배울 수 있었다. YWCA 활동을 공유하면서 소속감과 자부심이 커졌다. 올해는 대학·청년Y가 더욱 단단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YWCA 운동을 알릴 수 있으면 좋겠다.

### 신채은

마산YWCA, 2016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 운영위원

내가 속한 마산YWCA 소식밖에 몰랐는데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 운영위원을 하면서 전국에서 펼쳐지는 YWCA 운동을 알게 되고 시야가 넓어졌다. YWCA 소속감도 깊어졌다. 두 달에 한 번 열리는 운영위원회에서 대학·청년Y 사업을 직접 계획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어서 뜻깊었다. 올해도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에서 활동하고 싶었지만 취업준비로 함께하지 못해 아쉬울 따름이다. 기회가 되면 다시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 활동을 하고 싶다. 2016년 대학·청년Y 활동이 도약의 첫 걸음이 되어 2017년에도 더욱 성장해 많은 청년들에게 이토록 좋은 YWCA를 알릴 수 있으면 좋겠다.

### 이한비


대전YWCA, 2016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 운영위원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 운영위원을 하면서 YWCA에 대

한 열정이 생겨나고, 전국사업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다.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 운영위원 워크숍'과 '2016 YWCA 전국회원대회' 등을 통해 운영위원 모두가 YWCA 정체성을 더욱 이해하게 되고 '청년이 주체가 되어 나눔과 연대로 행복한 세상'이란 같은 비전을 갖게 되어 뜻깊었다. 중간에 운영위원들이 바뀔 때 안타까웠고 딱딱한 분위기에서 의견을 표출하지 못한 적도 있다. 그러나 워크숍 이후 친해지면서 회의록 하니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왔다. 앞으로 지역간 네트워크가 잘 이뤄지면 좋겠다.

### 문윤희

안양YWCA, 2016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 총무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기 힘든 세상에서 청년들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이해해주는 모임을 만난 것은 큰 행운이다. 여러 지역의 청년들과 모여 재건된 모임을 위해 깊은 고민을 했다. 대학·청년Y로 가까워서 YWCA를 보며 사회를 위한 움직임이란 어떤 것인지 경험했다. 대학·청년Y 기반을 다지면서 어려움도 겪었지만 끊임없는 배움의 순간이었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부담 없이 모일 수 있는 '따뜻한 모임'이 되었으면 한다. 무한경쟁에서 지친 청년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YWCA 청년 목소리에 먼저 귀기울이고 작은 목표부터 차근차근 실천해 나갔으면 한다. 

## '윈.더.플' 원하는 지역사회 더불어 풀어가자

47지역을 대표하는 회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 총회가 1월 12일(목)부터 14일(토)까지 YWCA 버들캠프장에서 열렸다. 이번 총회에서 신임 회장에 최선화, 총무에 이혜린이 선출되었다. 올해 전국운동 주제는 '청년과 지역사회'이란 슬로건 아래 '윈.더.플' 원하는 지역사회 더불어 풀어가자'로 선정되었다. 이를 위한 활동으로 ▲지역별 공정기행 코스 만들기와 교환기행 ▲테마가 있는 지역지도 만들기 ▲전통시장 활성화 기지단 운영과 지역특색 SNS홍보 ▲청년 유희공간 활용 기획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불편사항 개선 요구 ▲주민에게 혜택되는 지역정책 찾아 알리기 ▲지역의원 의정활동 모니터링 등의 추진이 제안되었다.



### 2017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 중앙임원

최선화(수원YWCA) 전국협의회 회장	김선호(대전YWCA) 중부지역 대표
이혜린(안산YWCA) 전국협의회 총무	변민영(광주YWCA) 서부지역 대표
이예지(안양YWCA) 북부지역 대표	김종민(마산YWCA) 동부지역 대표

# '나비의 꿈' 이루게 성차별, 전쟁 없는 세상을



전국 52개 YWCA 5,000여명의 청소년 회원들로 구성된 Y-틴은 2016년 중점운동 주제를 일본군 '위안부'로 정하고, 1년간 일본군 '위안부' 역사바로알기 운동에 주력했다. 2017년 1월 18일(수) Y-틴 전국협의회에서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가 '나비의 꿈'이란 제목으로 일본군 '위안부'의 역사적 이해에 관한 특강을 했다.

◀ 윤미향 정대협 대표가 특강을 하고 있다.

## '나비'에 비유되는 할머니들의 삶

할머니들도 여러분과 같은 소녀시절이 있었습니다. 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만든 전쟁 때문에 꿈도 빼앗기고 인권을 유린당했습니다. 과연 할머니들이 날개를 활짝 펴지 못하는 이유가 일본 정부에만 있을까요?

전쟁이 끝나 어렵게 조국에 돌아가게 된 할머니들은 위로 를 기대했으나 돌아온 것은 손가락질뿐이었습니다. 날개를 펴고 싶었지만 고향에서는 할머니들을 수치스러운 존재 로 보았습니다. 이 여성들을 향해 말도 꺼내지 말라는 한국 사회 강요 때문에 날개를 움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타래를 빼 자기 몸을 돌돌 감아버렸습니다. 한국사회가 만들 어낸 죄의식이 할머니들을 단단하게 감아 고치 속의 삶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할머니들을 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나비의 꿈은 할머니들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날개를 펴서 나는 나비의 꿈은 혼자만 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차별,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지 않으면 나비의 꿈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길원옥 할머니는 1939년 13살 나이에 일본군 '위안부'로 중국에 끌려간 뒤 1945년 18살이 되어 인천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38선이 그어져 고향인 평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일본군 '위안부'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으면서도 장사로 생계를 이어가며 양자를 들였습니다. 이 아들이 목사가 되어 1998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할머니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해 할머니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난 할머니는 "나는 수치스러운 사람이에요"라는 말만 하고 2002년까지 대중 앞에 나서지 않았으나 여러분 같은 청소년이 할머니를 변화시켰습니다. 수요시위에 온 청소년들이 "할머니 고맙습니다", "할머니 사랑합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셔서 우리가 할머니가 겪은 끔찍한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얼굴이 밝아지면서 지금까지 한주도 빠지지 않고 수요시위에 나오고 계십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 침략전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된 것에서 비롯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규모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약 20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이 여성 중 80%인 약 16만 명이 조선에서 끌려갔습니다. 현재까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신고는 239명에 불과합니다.

### 진상 규명해야 '희망' 만든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성격은 식민지 여성에 대해 일본 국가와 군이 정책적으로 집행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전쟁 범죄입니다.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범죄를 은폐하고 범죄자를 면책한 미군(연합군), 범죄를 은폐하고 미화하는 가해국(일본), 가부장적 사회에서 침묵으로 공조하며 피해자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피해국(한국) 책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협의에서 한국 정부는 10억엔 배상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합의했다고 했으나 여러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일본 군이 가해자라는 것을 명시하지 않고 꼭 인정해야 할 구체적 범죄사실과 인권침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조치 등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일본이 준다는 10억엔은 '법적 배상금'이 아닙니다.

1991년 8월 당시 67세였던 고 김학순 할머니는 정대협이 마련한 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음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했고, 다른 피해자들도 피해 사실을 밝히며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1992년 1월 8일 서울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작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는 25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필리핀, 인도네시아, 대만, 중국 네덜란드 등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1992년 아시아연대회의를 열었으며 미주, 유럽, 호주 등 여성단체와 손잡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여성인권운동으로 확산시켰습니다.

2012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김복동, 길원옥 할머니는 "우리가 일본정부에게 요구하는 것은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임을 재차 강조하고, 배상을 받게 되면 콩고나 우간다 등 전시성폭력 피해자들을 후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나비기꿈'이 만들어졌고 각종 폭력으로 고통 받는 여성과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시 희망을 만들 수 있을까요? 진실을 향한 피해 할머니들의 고발 그리고 이들과 연대하는 청소년, 시민, 국제사회가 이미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잡고 전쟁 없는 평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연대의 끈이 이어져야 날개를 펴 날고 싶은 나비의 꿈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인권에 나이는 없습니다 - 청소년 인권"

2017 Y-틴 전국협의회가 1월 18일(수)부터 20일(금)까지 YWCA 버들캠핑장에서 열렸다. 지역을 YWCA를 대표하는 Y-틴 회원, 실무자 등 106명이 참석한 이번 총회는 2016년 운동주제를 되돌아보고 2017년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첫날은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 특강과 활동보고, 2016년 중점운동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알리기 활동을 되새겼다. 둘째 날에는 신입임원 선출과 올해 운동주제를 선정했다. 2017년 전국협의회 회장에는 이서영(안양YWCA), 총무는 전유경(청주YWCA)이 선출되었다. 2017년 중점운동 주제는 '인권에 나이는 없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청소년 인권'이 채택되었다.



#### 2017 Y-틴 전국협의회 중앙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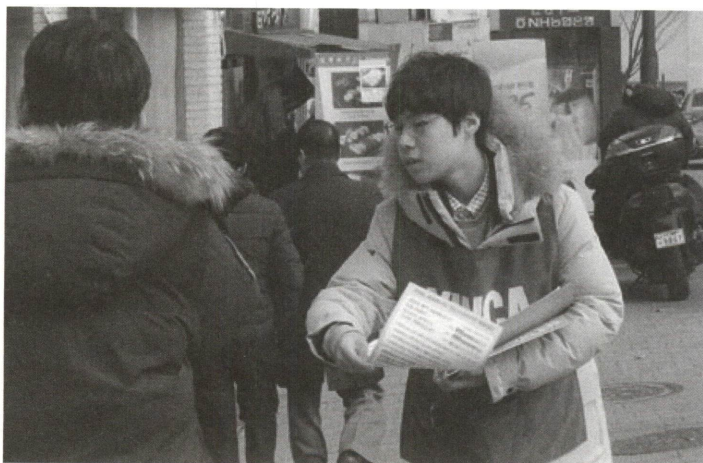
이서영(안양YWCA) 전국협의회 회장	김주영(청주YWCA) 중부지역 회장
전유경(청주YWCA) 전국협의회 총무	박규리(청주YWCA) 중부지역 총무
김한결(인천YWCA) 북부지역 회장	서지수(전주YWCA) 서부지역 회장
정수희(수원YWCA) 북부지역 총무	박유림(광주YWCA) 서부지역 총무

# 나는 왜 화요일마다 명동을 찾아오나

## 박상현

한가람고등학교 1학년

YWCA 청소년 탈핵 캠페이너



영화 <밀양 아리랑>을 본 적이 있다. 송전탑 건설을 막고 자 몸에 쇠사슬을 묶고 버티던 할머니들이 경찰의 강제진압으로 목에 쇠사슬이 조여 숨쉬지 못하던 장면이 아직도 기억난다. 도시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희생당해야 하는 시골 사람들을 보며, 나는 단순히 “발전소가 여러 사람 죽이는구나”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재생에너지가 좋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지만 이와는 별개라고 생각했다. 사실 탈핵이나 핵발전소에 관한 것은 하나도 몰랐고 관심조차 없었다. 인류는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쓰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사고로 세 번씩이나 확인했지만, 그저 먼 나라 이야기로 느꼈다.

그러다가 우연히 다시 <밀양 아리랑>을 봤다. 다시 목에 쇠사슬을 감은 그분들을 봤다. 그분들을 다시 보고나니 신규 핵발전소를 짓는다는 뉴스나 후쿠시마 사고 뉴스가 눈

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해야 한다’는 잔인한 논리의 현실판이었다. 더불어 핵발전소가 얼마나 환경을 파괴하는 것인지 알게 되었다. 방사능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물론, 자연까지 죽이는 것이 핵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YWCA 탈핵 캠페인은 지난해 여름방학에 알았으니 오래 전에 안 것은 아니다. 방학 중 해야 할 봉사를 찾다가 탈핵 캠페인을 알게 되었는데 참여하고 나니 계속해서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캠페인 교육에서 알게 된 내용은 지금껏 알고 있던 사실보다 더 심각했다. 핵발전이 발전기술의 종류가 아닌 인간이 만들어낸 괴물로 보였다. 핵을 없애는 것만이 인류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 더 참여해야 하는 이유가 생긴 것이다.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탈핵을 하면 무엇으로 전기를 생산하나”, “그것이 가능한가”라는 물음을 던지곤 한다. 처음엔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프랑스나 독일 등 많은 나라에서 그 ‘불가능할 것만 같은’ 일을 하고 있다. 더 근본적으로는 ‘할 이유’가 있으니 탈핵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탈핵을 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를 위해서다. 너, 나, 우리 모두다. 인간과 자연, 우리를 위해서다. 방사능이 어찌니, 반감기가 어찌니 등 복잡한 설명 필요 없이, 우리를 위

해서라고 생각한다. 방사능이라는 위험한 물질이 우리 일상 속에 숨어있으며, 우리를 덮치면 삶이 처참하게 파괴되는 것을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로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는가.

게다가 인간이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저항할 수 없는 자연을 무참히 파괴하고 잠시 편하겠다고 미래세대에게 방사성 폐기물을 떠안겨야 하는 무책임함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우리가 무심하게 쓰는 전기를 위해 지금도 어디선가 거리에 있을 <밀양 아리랑>의 '그들'을 생각해도 양심의 가책이 느껴진다. 이들 또한 '우리'다. 모든 것이 '우리'다. 그렇기 때문에 탈핵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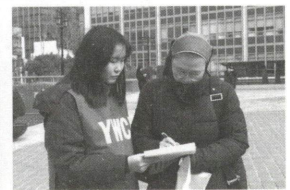
여름과 겨울, 방학을 앞두고 있으면 탈핵 캠페인부터 신청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다시 명동에 가서 피켓을 들고, 서명을 받을 생각에 들뜬다. 나에게 하나의 '시대사명'이 주어진 느낌이 들기도 한다. 탈핵만이 우리의 살길이라는 것을 알아서인지, 혹은 가만히 있으면 좀이 쑤시는 사람이라 그런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 좋다.

내가 방학마다 명동거리를 찾는 이유다. 내가 행동할 수 있는 시기에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었던 활동이기 때문이다. 우리를 위한 행동에 나서는 것이 또다른 '밀양'을 만들지 않고, 정말 영화와도 같은 일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다. 

### YWCA '핵발전소사고대응TF' 구성

한국YWCA연합회는 핵발전소 사고가났을 때 시민들을 위한 재난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핵발전소 사고대응TF'를 구성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핵발전소 재난대응 정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YWCA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TF팀은 사고예방, 사고시 대처방안 회원 행동지침, 대정부·대국민 긴급메시지 등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월 9일(월) 첫 모임을 시작한 TF팀은 연구모임을 만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2월 3일(금)에는 '핵발전소 사고와 시나리오' 그리고 방재계획을 주제로 한병섭 원자력안전방재연구소합 이사외의 강연을 진행했다. 다음에는 방사능 방재정책의 국내현황과 선진국 방재정책 제도를 분석할 예정이다.

### 사진으로 보는 청소년 탈핵캠페인



# 1천명 넘는 회원증모 가장 기억에 남는다

회원YWCA 원로 선배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원로에게 듣는다'

이번 호에서는 임경숙 마산YWCA 명예이사를 박현주 마산YWCA 사무총장이 만났다.



**임경숙** 마산YWCA 명예이사 역력

- 1976~2016 마산YWCA 이사
- 1981~1988 마산YWCA 그린함창단 단장
- 1991 대한YWCA연합회 자원지도자상
- 1997~2001 마산YWCA 18대, 19대 회장
- 1999~2000 경남YWCA협의회 회장
- 2000 대한YWCA연합회 회원증모 대상
- 2001~2001, 2003~2006 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
- 2002~2004 한국YWCA연합회 동부지역위원장
- 2017 마산YWCA 명예이사

## 소리없이 헌신하는 사람들

### YWCA와 첫 만남의 시작이 궁금합니다.

“1971년 결혼 후 아이를 연년생으로 낳았어요. 애들이 4살과 5살이 되었고, 남편도 병원을 개업해 정신없이 바쁠 때였는데 최태순 총무님과 임원들께서 YWCA 가입을 권유하기 위해 여러 번 집을 찾아왔어요. 1966년 창립된 마산YWCA가 10여년 된 시기였는데 무척 어려웠던 터라 도와달라는 요청과 나에게 쏟는 정성이 고마워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 여성근로자를 위한 야간학교와 ‘일하는 여성의 집’을 설립하는 등 여성인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했지요?

“1980년대 마산수출자유지역은 그 규모가 엄청났어요. 하지만 여성근로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으로 상상도 못할 어려움을 겪었어요. 마산YWCA 야간학교는 여성근로자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는데 중노동으로 등교할 수 없는 근로자를 위해 현장방문 교육도 했어요. 여성근로자들이 검정고시로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대학에도 진학했어요. 정말 뿌듯했지요. ‘일하는 여성의 집’은 많은 여성들이 직업훈련을 통해 사회에 진출할 것을 기대하며 1995년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마산YWCA가 한 일이고, 나는 그 도구로서 쓰임받았을 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적극 협력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8:28)는 말씀처럼 YWCA에서 소리 없이 헌신한 사람들이 협력한 결과예요.”

### 여전히 여성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한국사회에서 YWCA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일까요?

“여성 상위시대가 되었다, 초등학교 교사나 법조·의료계에 여성이 과반이상이라는 소식이 들리지만 실질적으로 결정권직과 힘 있는 자리에 여성은 거의 없어요. 이견 평등하지 못합니다. 먼저 여성이 여성을 지지해야 하고 YWCA 정체성을 가진 지도력이 직접 정치에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 마산YWCA와 함께한 40년간 무엇이 기억에 남는지요?

“슈퍼우먼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오롯이 YWCA만 생각하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재정을 만들면서 YWCA 발전에 도움 되는 일을 했어요. 회원증모운동에서 1천 명 넘게 모아 회원모집상을 받았을 때 무척 보람되고 기뻐요. 당시 내가 소득이 없었는데 YWCA 일로 밖에 나가 지갑을 비워오면 남편이 지갑을 채워주면서 ‘소비자조합장님 다녀오시냐 하더라고요(웃음). 또 기억에 남는 일이 마산교도소 장기수 교화운동을 했는데 도무지 마음을 열지 않는 장기수가 한 명 있었어요. 오랫동안 깊이 기도를 했는데 목사가 되면서 제게 편지를 보냈어요.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 목사가 된 장기수의 편지

#### 마산YWCA의 역할과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1980년대 YWCA 교육을 통해 파출부를 직업인으로 양성했을 때 저도 강사로 나섰어요. 그게 지금 YWCA 돌봄과 살림 사업의 뿌리가 되었지요. 남존여비 문화를 없애고 성비불균형 해소를 위한 ‘딸사랑 운동’도 펼치고 저출산 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출산장려 운동까지 YWCA는 여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이런 YWCA가 없으면 깜깜했겠지요. YWCA 만큼 공신력 있으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NGO는 없어요. 또 초교파적인 곳이 YWCA예요. 세상의 빛이 되는 YWCA가 없었다면 마산은 암울했을 것이라 생각해요. 빛을 밝히는 것이 YWCA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YWCA 사업이 방대할 만큼 나를 다방면으로 성장시켜 주었다고 봅니다. 40년을 봉사했으나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고 해결해야 할 일도 많아요. 당장 성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열심히 일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성장했음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YWCA로 인해 제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요로워졌는지 모릅니다. 눈앞의 것만 잡으려 하지 말고,



1998년 ‘딸사랑운동’ 캠페인에 참여했다. (왼쪽에서 두번째).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멀리 길게 보고 일하면 좋겠어요. 멀리 보면서 현재에 충실하다 보면 큰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 YWCA에서 본받고 싶은 지도력은 어떤 분이었는지요

“YWCA에는 개혁적이고 진취적인 기라성 같은 여성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훌륭한 선배님들의 티없는 아름다움을 배웠습니다.”

### YWCA가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일까요?

“YWCA 목적문에 나온 대로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 실현을 위해 계속 애써야 합니다. 무엇보다 남북 평화통일을 진지하게 준비해야 하며 스마트시대에 부응하는 지도력을 길러내야 합니다. 유연한 사고를 갖고 관용과 존중, 배려와 연민을 통해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차원의 회원공동체 운동을 펼쳐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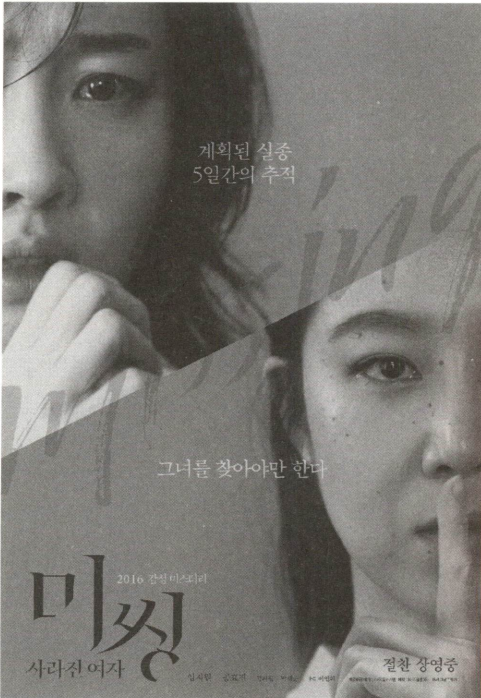
### 그동안 회장님을 지탱한 말씀이 궁금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3)는 말씀과 김용석 시인의 시 ‘가을이 오면’을 좋아해요. ‘나는 꽃이에요/있을 나비에게 주고/꽃은 솔방벌에게 주고/향기는 바람에게 보냈어요/그래도 난 잃은 건 하나도 없어요/더 많은 열매로 태어날 거예요/가을이 오면...’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의지하며 일하는 것,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를 비우고 내어주며 YWCA 일을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풍족한 열매들로 채워주셨네요.” 

# 영화 '미씽 : 사라진 여자'

김상은

한국YWCA연합회 간사



**영**화 '미씽'은 여성이면서 엄마로 살아가는 두 여성, 지선(엄지원 분)과 한매(공효진 분)가 극을 이끌어간다. 요즘 영화계에서 여성 두 명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설정은 보기 어렵다. 더욱이 여성감독(이연희)이 제작한 영화라 더욱 관심을 갖게 했다. 극의 전체를 이끌어간 사건은 한 아이의 실종인데 부제가 왜 '사라진 여자'일 수밖에 없었는지는 영화가 끝날 때쯤 알게 된다.

이혼 후 딸아이 양육권을 얻기 위해 죽을힘을 다해 사는 워킹맘 지선에 게 중국 이주여성 보모 한매는 한줄기 빛과 같이 나타난다. 지선의 아기를 섬세하고 살뜰하게 보살피는 한매는 지선에게 고마운 존재였고, 이주 여성으로 돈을 벌어야 했던 한매에게 보모라는 직업은 별다른 기술 없이도 할 수 있는 적절한 자리였다. 어느 날 한매, 그리고 지선의 아이가 함께 사라졌고 실종된 아이를 찾기 위한 숨겨진 추적의 시작된다. 이 과정에서 지선은 한매가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녀가 이제껏 겪어온 차별과 폭력으로 얼룩진 비참한 삶을 알게 된다.

## 사회안정망 바깥으로 '사라진 여자'

한매는 살아남기 위해 삶을 이어왔던 여성이다. 자신의 가족 그리고 생존을 위해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왔다. 가부장적인 농촌 남성과 결혼해 인격을 빼앗긴 채 살아간다. 언어, 신체적 폭력은 물론이고 사회 경제적 차별로 인한 심리적 폭력에도 시달린다. 그러던 중 임신하게 되었고, 그렇게 찾아온 생명은 그녀의 척박한 삶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태어난 아이가 여자아이라는 이유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자식뿐 아니라 아이조차 버림받는 현실에 맞닥뜨린다. 한매는 선천적으로 난치병에 걸린 아이를 살리기 위해 겨우 병원에 입원시켰으나, 감당할 수 없는 병원비는 그녀를 사회 테두리 밖으로 처절하게 내몬다. 한매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장기와 몸을 판다. 병원비 수납을 수차례

미뤄 독촉을 받던 중 병실이 만석이 되자 한매의 병든 아기는 쫓겨난다. 그 자리엔 병원의사 딸이 입원한다. 바로 지선의 아이였다. 결국 한매의 아기는 달동네 단칸방에서 쓸쓸히 죽고 만다.

### 사회안전망 경계에서 살아남기

이혼 후 육아와 생계를 혼자 책임져야 하는 싱글 워킹맘 지선. 겨우 복직해 숨가쁘게 돌아가는 직장에서 살아남고자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하지만, 남성 상사로부터 돌아오는 말은 “이래서 애 엄마랑은 일하면 안 돼”라는 것이다. 고루하고 진부한 대사업에도 현실에서 늘상 들리는 말이기에 씩씩하다.

지선은 자신의 아이를 병원에 입원시킨 일이 다른 여성, 즉 한매의 삶을 그토록 비극으로 내몰게 될 줄 몰랐다. 남편이 의사이기에 만석인 병실에서도 딸을 입원시킬 수 있던 엄마 지선, 몸뚱이밖에 남지 않은 이주여성으로 밀린 병원비조차 내지 못해 아픈 아기를 쫓겨나게 만들 수밖에 없던 엄마 한매. 두 여성 다 엄마라는 이름과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았으나 시작부터 달랐던 삶의 조건은 이렇게 다른 결과를 만들었다.

### 엄마를 위한 나라는 없는가

영화를 단순하게 보면 한매의 아기가 병실에서 쫓겨난 사건으로 촉발된 복수극에 불과하다. 그러나 아이를 잃은 엄마 한매는 이제껏 그 하나의 사건만 있던 게 아니다. 결혼이주여성으로서 한국사회에서 그녀는 인간 이하 취급을 받았다. 이주 전 고향에서 삶도 순탄치만은 않았을 것이다. 한매는 그 수많은 가해자 중 지선을 타깃으로 정해 ‘한’을 풀고자 했다.

한매가 아기와 함께 병실에서 쫓겨난 날, 그녀는 단순히 병실공간에서 쫓겨난 게 아니었다. 그녀는 아이와 함께 그저 사람답게 살고 싶은 소박한 바람에서 버림받았고, 엄마로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스스로를 내몰았을 것이다. 우리 주변 어딘가에 이런 처지의 삶을 살아내는 여성들이 있을 법해 마음이 무겁다. 여성이기에 당할 수밖에 없는 편견과 차별이 만들어내는 현실이 지독하다. 엄마이기에

더 옥죄일 수밖에 없는 세상과 마주한 이들은 얼마나 많은가.

영화 부제가 왜 ‘사라진 아기’가 아닌 ‘사라진 여자’였는지 알게 된다.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여성의 처절함과 싱글 워킹맘의 애환이 그려진 영화 미씽은 그래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가 모호하다. 지선과 한매는 출신, 직업, 살아온 환경 등은 달랐지만, 여자라는 사회적 약자로서 처지는 닮았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서로 다른 방식의 폭력을 감내해야 했던 두 여성이 사회폭력에 맞서는 모성의 힘으로 갈등 끝에 이쁨을 공감하는 대목이 애잔하다.

### 왜 나그네에 관대하지 못할까


사회적 약자인 여성, 그리고 여성이자 이방인으로 이중삼중의 차별을 받는 이주여성이나 다문화가정 여성들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 우리 사회는 왜 이방인, 나그네에 관대하지 못한 걸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라고 강조하고 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뭉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신명기 24:19)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시편 146:9)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스가랴 7:10)

예수는 신분사회에서 평등의 중요성을 이야기했고, 특히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 어린이, 이방인의 인권에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대했다. 예수가 세상 여정을 마칠 때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한다. 차별 없고 조건 없는 무제한적 환대가 심판의 기준이라고 말한 것이다. 예수 정신의 핵심인 연민, 사랑, 배려, 환대가 우리 사회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실천임을 깨닫는다.

“너희는 내가 주릴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마태복음 25:35-35) . 

2017 YWCA 신년예배



YWCA 신년예배가 1월 5일(목)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임성빈 목사(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가 '위기시대와 신앙'을 주제로 YWCA가 하나님의 기관으로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성령충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설 것을 당부했다.

YWCA 신입회장 연수



2017 YWCA 신입회장 연수가 2월 6일(월)부터 7일(화)까지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열렸다. YWCA 정체성 이해와 YWCA 목적문을 통한 양성훈련 등을 통해 회원YWCA 회장으로서 사명을 다짐했다. 이명혜 연합회 회장과 한영수·원영희 부회장, 21개 회원YWCA(광양, 광주, 동해, 부산, 사천, 성남, 속초, 수원, 안동, 안산, 양산, 울산, 인천, 제천, 진주, 창원, 천안, 춘천, 충주, 파주, 포항) 신입회장이 참석했다.

2016 키다리학교 활동나눔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토요일안학교 키다리학교 활동나눔이 2월 15일(수)부터 15일(목)까지 YWCA 버들캠캠프장에서 열렸다. 'Y다운 리더' 이해를 위한 특강, 키다리학교 정신인 '비전, 팀, 실천 리더십' 체험 프로그램, 14개 지역 키다리학교 활동과 비전 공유 등을 진행했다. 63명이 참가했다.

제1차 여성폭력관련 시설장 모임

지난해 세 차례 워크숍을 통해 올해부터 분기별 모임으로 정례화한 YWCA 여성폭력관련 시설장 워크숍이 1월 10일(화) 광주YWCA 가정상담센터에서 열렸다. 15개 지역 시설장이 모여 여성폭력관련 운동내용을 협의하고 YWCA 여성폭력관련 시설장 네트워크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다음 워크숍은 4월 충주 YWCA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열린다.

제11회 씽크머니 우수프로그램 시상식



2016 '배우고 체험하는 청소년 금융교실-씽크머니' 우수프로그램 시상식이 12월 21일(수)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광주YWCA와 안산청소년문화의집이 우수 회원YWCA로, 가온지역아동센터가 우수협력기관으로 선정됐다. 우수 YWCA강사에 원정희(목포YWCA)·이윤수(청주YWCA)씨, 우수 씨티강사에 씨티은행 권철원·고훈씨가 선정됐다.

씽크머니 금융교실 '거꾸로 학습법' 연구수업

씽크머니 금융교실이 '거꾸로 수업'으로 불리는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 방식을 국내 처음으로 청소년 금융교육에 적용한 연구



수업을 진행했다. 80명의 학생들은 1월 16일(월)부터 24일(화)까지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이번 수업에서 카드뉴스 만들기, 디지털매체를 활용한 '건강한 금융생활' 영상제작 등을 학습했다. 플립드 러닝은 학생이 온라인 등으로 학습주제를 미리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업에 주도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한 교육방식이다.

청년기자단 2기 'Y-ON' 구성



청년기자단 2기가 구성되었다. 1기 'Y러너'에 이어 2기는 항상 기자로서 'on air(실행중)' 되자는 뜻과 '전부'라는 한글 '은'을 의미한다. 1월 21일(토)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9명의 대학, 청년이 참여하고 있다. 고가영 안양YWCA 대학·청년Y 회원이 대표로 뽑혔다. 2기 기자단은 6월까지 활동한다.

북한 수해기금 1만달러 전달

연합회는 북한 함경북도와 양강도 지역 수해 복구를 위해 1만달러(1,200만원 상당)를 2월 2일(목) 국제적십자자연맹에 전달했다. 유엔 중앙긴급구조기금은 지난해 태풍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북한수해지역에 505만달러(60억원 상당)의 긴급지원을 결정했다. 그러나 피해규모가 커서 수해복구와 식량부족

를 위한 북한 주제 유엔기구들의 지원요청은 계속 되고 있다.

### 새로일하기센터 실무자 연수

회원YWCA가 직접 운영하는 새로일하기센터 실무자 연수가 2월 15일(수)부터 16일(목)까지 연합회와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렸다. 취업기관 실무자의 역할과 자세를 고민하고, 비영리 취업지원기관으로서 정체성 확립방안을 논의했다. YWCA는 34개의 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7개는 여성인력개발센터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 국민소송단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승소

YWCA 회원 117명을 포함한 2167명의 국민소송단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낸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2월 7일(화) 원고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시민들이 행정소송으로 노후원전 수명연장 결정을 취소시킨 것은 세계 첫 사례다. 한국에서 두 번째 오래된 원전인 월성1호기는 설계수명 30년을 넘어 가동중단됐지만, 원안위 결정으로 2015년부터 재가동되고 있다. 원안위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지정기부

신희운 연합회 명예연합위원 : 북한어린이돕기 후원금 500만원

### 인사

#### 사직

##### 배유미 간사

(중점운동국 대학·청년위원회) 2017.2.28

#### 채용

##### 이희정 간사

(중점운동국 돌봄과 살림위원회) 2017.1.1

##### 최지영 간사

(정책기획국 생명비전연구소) 2017.1.1

##### 김수진 간사

(중점운동국 대학·청년위원회) 2017.3.1

## ● 북한어린이돕기 모금현황 ●

(2016.12.1 ~ 2017.1.31)

구분	기부자 명단	금액
CMS기부	강승아, 강현중, 고세영, 고예민, 고은희, 곽지영, 구정혜, 권순복, 권인택, 권진, 김가현, 김경숙, 김경희, 김귀옥, 김근혜, 김기동, 김미, 김명희, 김미경, 김병호, 김사라, 김상은, 김수연, 김애연, 김영자, 김영현, 김예슬, 김은경, 김일근, 김재연, 김정린, 김주영, 김주현, 김진용, 김태연, 남희숙, 명진숙, 문권희, 문미란, 문인수, 민선영, 박보람, 박성민, 박영순, 박용옥, 박은실, 박임희, 박진화, 박효정, 배정미, 백보람, 백정미, 백재진, 서명희, 손서정, 손정원, 송록희, 신인희, 심은옥, 안정희, 양종원, 엄효정, 오소영, 오시창, 오영란, 오현숙, 원영희, 유도희, 유빈, 유성희, 유수, 윤명선, 윤수정, 윤혜식, 이남희, 이명혜, 이순덕, 이영미, 이영숙, 이원호, 이윤숙, 이은영, 이정숙, 이종숙, 이주영, 이자은, 이천진, 이행자, 이해연, 임강숙, 임국이, 임진영, 임향옥, 장경자, 장미란, 장선희, 장운우, 전배자, 전정미, 전하예, 정경란, 정동신, 조성애, 조영미, 조은영, 조은희, 진인식, 채정희, 최수선, 최형선, 하은경, 한영수, 한주경, 한혜경, 함희경, 홍기자, 홍선심, 홍현정, 홍현화, 황홍백	3,673,000
회원YWCA	강릉YWCA, 거제YWCA, 고양YWCA, 광양YWCA, 광명YWCA, 광주YWCA, 김해YWCA, 남양주YWCA, 남원YWCA, 논산YWCA, 대구YWCA, 대전YWCA, 마산YWCA, 목포YWCA, 부산YWCA, 부천YWCA, 서귀포YWCA, 서울YWCA, 서천YWCA, 성남YWCA, 세종YWCA, 속초YWCA, 수원YWCA, 순천YWCA, 안동YWCA, 안산YWCA, 안양YWCA, 양산YWCA, 울산YWCA, 원주YWCA, 의정부YWCA, 익산YWCA, 인천YWCA, 전주YWCA, 제주YWCA, 제천YWCA, 진주YWCA, 진해YWCA, 창원YWCA, 천안YWCA, 청주YWCA, 춘천YWCA, 충주YWCA, 통영YWCA, 파주YWCA, 포항YWCA, 하남YWCA	26,587,185
부속시설	거제YWCA어린이집, 마산YWCA어린이집, 목포YWCA어린이집, 부산진구어린이집, 수원유아체육시설, 전주YWCA어린이집, 청주서부어린이집	2,155,130
개인기부	계광림, 김김미, 김수연, 김숙한, 김주현(길위의 평화학교 감사비 후원), 박용옥, 백보람, 심명자, 오경선, 이현순, 최순영, 최혜실, 무무명	652,710
협력교회	기쁜소식교회, 성광교회 에스더모장, 약전평강교회, 한양대학교교회 여성교회	490,000
기관, 단체	NH농협은행(명동지점), 다운약국, 르뽁(명동성당점), 레오니다스, 마포구 신수동 주민센터, 마포구청성교신우회, 명성약국, 부곡중학교, 부천상동기독교서점, 에세레 젤라또(명동점), 은학의집 저금통, 은학의집 성탄예배 헌금, 전광수 CoffeeHouse (명동성당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상동점	645,210
교육, 모금	2016년 성탄예배 북한수해돕기 헌금, Y스트링 2016년 성탄예배 연주 사례비 후원, 2016년 한일YWCA협의회-일본구미모토 YWCA 동전모금 (연합회전)	1,222,690
<b>합계</b>		<b>35,425,925</b>

북부

동해YWCA 전민지 간사

제29회 정기총회



1월 17일(화) 제29회 정기총회가 동해YWCA 강당에서 열렸다. 2016년 사업결산과 2017년 사업계획을 공유했다. 회원들은 올해도 지역사회를 위해 힘을 쓸 것을 다짐했다.

서울YWCA 성지희 간사

미안마 여성을 위한 교육봉사



서울YWCA 청년봉사단은 1월 11일(수)부터 22일(일)까지 11박 12일간 미안마 양곤에서 교육봉사 활동을 펼쳤다. 26명의 단원들은 미안마 YWCA, 미안마Y-틴과 함께 여성들을 위해 수공예·컴퓨터·한국어 교육을, 수타옹피에 초등학교 학생을 위해 영어·과학·미술·음악 수업을 진행했다. 세계시민으로서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나눔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다.

속초YWCA 주미란 간사

설맞이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

설 명절을 맞아 속초중앙전통시장과 인근 상점가를 중심으로 1월 26일

(목) 물가안정 캠페인을 벌였다. 공정한 거래질서를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이번 캠페인에서 속초YWCA는 가격표시제, 원산지표시, 계량단위 준수여부 등을 점검했다. 실무활동가와 주민이 함께 참여했으며, 지역시장 물가안정에 기여했다.



인천YWCA 김하연 간사

인천도시가스와 복지기금 후원협약



인천YWCA와 ㈜인천도시가스(공동대표이사 이가원)는 1월 23일(월) 인천도시가스 본사에서 '복지기금 후원협약'을 맺었다. 인천도시가스는 인천YWCA가 주관하는 자원순환 녹색나눔장터 운영 활성화와 자원절약 실천에 동참하기 위해 600만원을 후원했다. 소년소녀가장돕기, 복지시설 봉사 등 사회환원활동을 펼치고 있는 인천도시가스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인천YWCA를 후원하고 있다.

춘천YWCA 육여진 간사

제51회 정기총회, 제25대 회장 취임

제51회 정기총회가 1월 24일(화) 춘천YWCA 강당에서 열렸다. 2016년 사업보고와 2017년 사업계획, 예산안 심의가 이뤄졌다. 이어 제25대 허미순 회장 취임예배를 진행하였다. 회원 100여명과 지역기관 대표들이 참석해 2017년 춘천YWCA 사업을 적극 펼쳐나갈 것을 다짐했다.



## 경기

고양YWCA

남궁혜경 국장

### 제28회 정기총회, 사무총장 취임식



제28회 정기총회가 2월 4일(토) 고양시 동구청 강당에서 열렸다. 2016년 사업보고와 결산보고, 2017년 사업계획 심의 등이 진행됐다. 신임 이사와 공천위원 인준에 이어 시상식에서는 후원기관 감사패, 봉사상, 평생회원패, 회원증모상을 수여했다. 또한 이경애 신임 사무총장 취임식을 가졌다. 어린이, 청소년 회원과 이사 등 120여명이 탈핵선언 낭독을 통해 올해도 탈핵운동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성남YWCA

김경진 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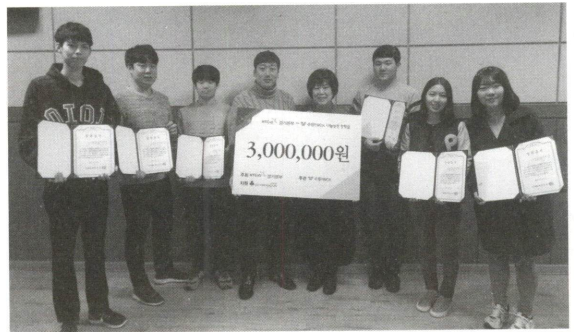
### 동계자원봉사학교 '잘가래 핵발전소' 캠페인

성남YWCA는 2월 11일(토) 성남시 아탑역에서 제1회 동계자원봉사학교 '잘가래 핵발전소' 캠페인을 열었다. 30여명의 청소년들이 탈핵 캠페인 피켓을 직접 만들어 시민들에게 탈핵의 중요성을 알리고, 핵발전소 반대서명 운동을 펼쳤다. 이번 자원봉사활동으로 탈핵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높이는 기회가 되었다.

수원YWCA

정지영 간사

### 제48회 정기총회와 장학금 전달



1월 24일(화) 제48회 정기총회가 수원YWCA 강당에서 열렸다. 2016년 사업보고, 2017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승인에 이어 회장이 취임식을 진행했다. 김성아 전 부회장이 신임회장으로 취임했으며, 이사 5명과 공천위원 7명을 인준했다. KT&G 경기본부에서 후원받은 300만원 장학금을 회원과 지역학생 4명에게 전달했다. 이날 참석한 110여명 회원들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YWCA 결의문'을 낭독하며 탈핵운동 실천을 다짐했다.

안산YWCA

문성은 주임

### 청소년 사회적기업 아이디어 제안대회



경기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안산YWCA가 주관하는 '사회적 기(氣)업 (UP) 꿈의학교' 아이디어 제안대회가 2월 11일(토)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에서 열렸다. 청소년들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체험하고, 참가자끼리 팀을 이루어 기업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예비사회적기업(주)미래도시농업의 시설, 프로그램, 홍보를 돕는 아이디어를 제안한 성호중학교 이노베이션팀이 수상했다.

## 안양YWCA

김순태 간사

### 찾아가는 청소년 성교육 '빠담빠담'



안양YWCA 청소년성문화센터는 1월 25일(수) 군포사랑지역아동센터에서 찾아가는 청소년 성교육 '빠담빠담'을 진행했다. 초등학교 1~3학년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4~6학년은 사춘기 성교육을 하면서 주체적인 성적 행동을 하고 올바른 성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성폭력과 장난 구분하기, 성폭력 대처방법, 임신부 체험과 신생아 안아보기 등 다양한 교육이 진행되었다.

## 의정부YWCA

정진아 팀장

### '청소년+어르신 친친데이' 자원봉사학교



1월 23일(월)부터 25일(수)까지 청소년 동계자원봉사학교 '청소년+어르신 친친데이'를 진행했다. 봉사학교 참여 청소년들과 신곡노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경증치매 어르신의 소통 프로그램으로 1일차 '노(know) 노(老)데이'에서 어르신 이해 시간을, 2일차 '친친데이'에서 다양한 게임을 하며 소통시간을 가졌다. 어르신은 청소년 문화를, 청소년은 어르신을 이해하는 세대통합 시간이 되었다.

## 중부

### 논산YWCA

이경희 팀장

### 제16회 정기총회와 장학금 전달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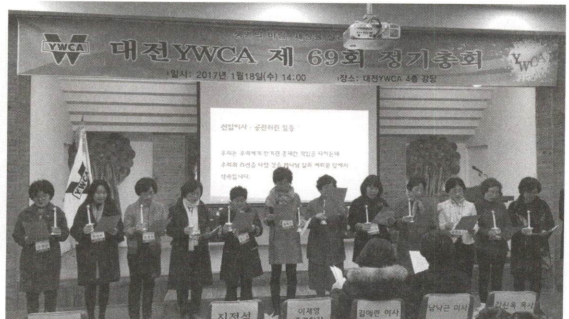


1월 19일(목) 제16회 정기총회가 논산YWCA 강당에서 열렸다. 2016년 사업보고와 2017년 사업계획, 신입이사-공천위원 인준을 진행했다. 장학위원회는 지역사회 소외 청소년 20명, 여성 1명, 기관 1곳에 장학금을 전달하고 나눔정신을 실천했다. 회원, 이사 등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탈핵선언문 낭독과 탈핵영상을 보며 탈핵운동에 힘을 얻을 것을 다짐했다.

## 대전YWCA

이다정 간사

### 제69회 정기총회와 시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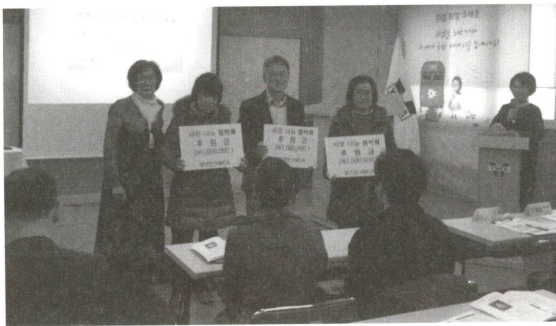
1월 18일(목) 제69회 정기총회가 대전YWCA 강당에서 열렸다. 회원, 자

원지도자, 실무활동가 등 2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예배, 시상식, 본회의로 진행되었다. 시상식에서는 특별상, 감사패, 봉사상, 모범위원 회상, 평생회원패, 장학금이 수여되었다. 이어진 본회의에서는 2016년 사업보고, 2017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심의, 이사·공천위원 선출이 이뤄졌다. 창립 기주년을 맞은 대전YWCA는 100년을 향해 탈핵생명, 성평등, 청소년, 돌봄정의, 평화통일운동 확장을 위해 힘을 다짐했다.

## 천안YWCA

정상란 팀장

### 청소년기관과 시설에 1,000만원 후원



천안YWCA는 1월 17일(화) 강당에서 열린 제27차 정기총회에서 '사랑나눔음악회' 수익금을 지역 청소년기관과 시설에 전달했다. (사)한국WEC 국제선교회 세종글로벌학교에 700만원, 청소년 꿈찬공동생활가정에 200만원, 개인 1명에게 100만원 등 총 1,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천안YWCA는 지난해 12월 연 '후원의밤 사랑나눔음악회'에서 지역단체와 회원들의 후원으로 수익금을 마련했다.

## 청주YWCA

박보람 간사

### 제52회 정기총회



1월 19일(목) 청주YWCA 강당에서 제52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2016년 사업보고와 결산, 2017년 사업계획과 예산을 승인했다. 이어 제신임·신

임·보선이사, 공천위원 인준과 10년 봉사상을 수여했다. 회원 1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YWCA는 올해도 하나님나라를 만들기 위한 활동에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 서부

### 광주YWCA

손유영 부장

### 제88회 정기총회, 신임회장 선출



1월 19일(목) 광주YWCA 강당에서 제88회 정기총회가 열렸다. 회장·취임식과 이사, 공천위원 헌신예배를 진행했다. 제29대 민혜원 신임회장은 1995년 광주YWCA 청소년상담실 봉사를 시작으로 청소년쉼터 위원, 서기이사로 활동했다. 진실하고 정의로운 마음으로 실무자를 지지하고 YWCA 변화를 이끌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남원YWCA

김미정 간사

### 제25회 정기총회



1월 17일(화) 남원YWCA 강당에서 제25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개최예배

를 시작으로 2016년 사업보고, 2017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심의 등을 진행했다. 봉사상 시상식과 Y-틴과 회원들을 위한 경품행사도 마련했다.

## 목포YWCA

곽수현 국장

### Y-틴 '세월호 1000일의 기다림' 참여



세월호 잊지 않기 목포공동선천회와 1월 7일(토) 목포 평화광장에서 개최한 '세월호 1000일의 기다림' 추모행사에 Y-틴 회원 50명이 참여했다. 세월호 참사 1000일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플래시몹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304명 희생자 이름이 적힌 명패를 든 침묵행진, 팽목항을 향한 묵념 등으로 진행되었다. 목포YWCA Y-틴은 또래 친구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갈 것을 다짐했다.

## 서귀포YWCA

김수진 간사

### 학부모 대상 진로콘서트 개최



서귀포시진로교육지원센터는 2월 7일(화) 서귀포YWCA 회관에서 학부모 60여명을 대상으로 진로콘서트를 열었다. 석철진 경희대 명예교수가 '똥(사)고치며 미래(로) 나아갑시다'를 주제로 변하는 미래에 맞춰 학부모 사고의 틀을 고치기 위한 방법을 강의했다. 서귀포YWCA가 운영하는 서귀포시진로교육지원센터는 지역기관과 협약을 통해 초·중·고 학생들에게 진로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 순천YWCA

문세인 간사

### 정영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구정바자회



실무자들과 여성 교역자들의 학업지원을 목적으로 마련된 '정영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구정바자회가 1월 12일(목)부터 13일(금)까지 순천YWCA 회관에서 열렸다. 순천YWCA 구정바자회는 착한가격, 착한소비를 이끌어내는 주문 선물용 바자회로 지역사회에 자리잡았다.

## 여수YWCA

박선주 간사

### 제35회 정기총회



1월 24일(화) 제35회 정기총회가 여수YWCA 강당에서 열렸다. 개최예배를 시작으로 감사패, 봉사상, 회원증모 우수자와 근속직원에게 시상했다. 이어 2016년 사업보고, 2017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심의, 공천위원 인준, 이사·공천위원 선서 등을 진행했다. Y-틴, 대학·청년Y 회원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15년 이상 이사로 활동한 정금희 증경회장을 명예이사로 추대했다. 아울러 '신고리 5·6호기 백지화하러!' 피켓을 들고 탈핵결의문을 낭독하며 탈핵운동에 주력할 것을 다짐했다.

## 전주YWCA

김은진 국장

###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과 캠페인

전주YWCA는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과 재생에너지 전환



축구를 위해 1월 5일(목) 효자동에서 거리캠페인을 펼쳤다. 이어 제49회 정기총회가 열린 1월 20일(금) 참석자 150여명 회원들과 함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YWCA 회원 결의문'을 낭독하고 '잘가라! 해발전소' 구호 제창과 서명운동을 진행하면서 탈핵의지를 다졌다.

**제주YWCA** 이유리 간사

**제50차 정기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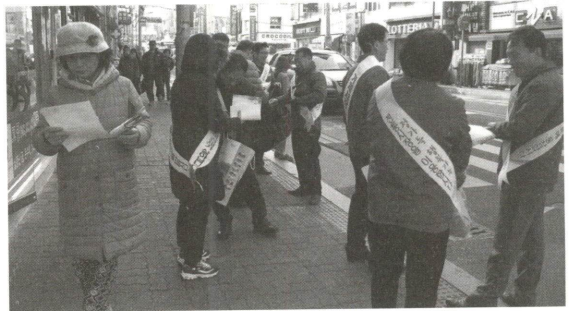
1월 18일(수) 제50차 정기총회를 제주YWCA 강당에서 열었다. 2016년 사업보고, 2017년 사업계획과 예산 승인, 신입이사·인준이사 위촉이 진행되었다. 또한 감사패, 모범회원상, 민들레회원증모상을 수여했다. 문영희 회장이 연임되었으며 고미연, 이정필 부회장이 선출되었다.

**동부**

**거제YWCA** 장미숙 간사

**물가안정과 겨울철 에너지절약 홍보**

거제YWCA는 거제시 주관 물가안정 캠페인을 1월 20일(금) 고현시장에서 펼쳤다. 공영주차장 무료개방, 거제사랑상품권 5%할인판매, 장바구니



니와 무릎담요 나눠주기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전통시장 장점을 알리고 상인들에게 물가안정 캠페인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장바구니 사용으로 일회용품 줄이고, 무릎담요와 내의 착용으로 에너지를 절약할 것도 강조했다.

**김해YWCA** 배정숙 부장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재인증**



김해여성인력개발센터는 '2016년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에 참가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우수기관으로 재인증을 받았으며, 취업지원 서비스에 대한 공공신뢰를 높게 되었다.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사업은 고용서비스에 대한 표준적인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 우수기관을 인증·공표함으로써 고용서비스 품질향상 촉진과 구인·구직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한다.

**대구YWCA** 배민희 간사

**북한이탈주민 가정 방문**

대구YWCA '평화지기 자원봉사단'이 1월 20일(금)부터 25일(수)까지 대구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 50가정을 방문해 설맞이 선물을 전달하고 덕담을 나누었다. 북한



이탈주민들은 대구YWCA 격려와 위로에 고마운 마음을 표했다. ‘평화지기 자원봉사단’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해 생활상담, 체험활동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 부산YWCA

윤영인 간사

### 신고리5·6호기백지화부산시민운동본부 동명대상



부산YWCA가 사무국을 맡고 있는 신고리5·6호기백지화부산시민운동본부(상임공동대표 하선규 부산YWCA 증경회장)가 대한민국 최초 상업 원전인 고리1호기 영구 폐쇄 결정에 기여한 공로로 1월 12일(목) 제9회 봉사부문 동명대상을 수상했다. 동명대상은 옛 동명목재 창업주 고강석진 회장의 ‘도전 창 의 봉사’ 정신을 기리기 위해 2008년 제정된 상이다.

## 사천YWCA

정희경 간사

### 제29회 정기총회, 회장 이·취임식



1월 20일(금) 제29회 정기총회와 회장 이·취임식이 사천YWCA 강당에서 열렸다. 2016년 사업보고, 2017년 사업계획과 예산 승인, 공천위원과 신임이사 인준, 현장개정이 진행되었다. 조춘복 이임회장이 감사인

사를 했으며, 정경숙 신임회장이 YWCA 목적에 맞게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갈 것을 다짐했다.

## 울산YWCA

김다혜 간사

### 회장 이·취임식



회장 이·취임식이 2월 13일(월) 울산YWCA 강당에서 진행되었다. 울산YWCA는 1월 23일(월) 정기총회에서 제18대 회장으로 서정순 신임 회장을 선출한 바 있다. 이·취임식은 문상순 직전회장 이임사 낭독과 공로패 수여, 서정순 신임회장 취임사 낭독과 환영식으로 진행되었다.

## 진주YWCA

송광은 간사

### 제39회 정기총회, 신임회장 선출



1월 24일(화) 제39회 정기총회가 진주YWCA 강당에서 열렸다. 2016년 사업결산, 2017년 사업계획을 승인했으며 자원지도자 봉사상, 감사패도 시상했다. 이날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김성이 전 회장이 신임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회원 86명이 참여했다.

## 창원YWCA

이아름 간사

### 인문학 동아리 ‘인문학의 숲’

인문학 동아리 ‘인문학의 숲’은 2월 2일(목) 정기모임에서 <관촌수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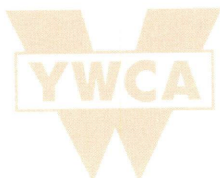
을 읽고 생각을 나누었다. 올해 1월 정기총회에서 공식 동아리로 인준받은 '인문학의 숲'에는 창원YWCA 회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월 1회 모임을 갖는다. 3월 모임에서는 <오래된 미래>를 읽고 자발적 가난을 고찰하는 시간을 갖는다.

**포항YWCA** 김수영 간사

**'애들아, 밥먹자!' 간담회**



포항YWCA와 포스코가 함께하는 '애들아, 밥먹자!'를 위한 협력학교 간담회가 1월 17일(화) 더가든에서 열렸다. 포항시, 포항교육지원청, 포스코, 일선학교 등 담당자 20여명이 참석해 포항시 고등학교 재학생 1만8천여명이 캠페인에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회원YWCA 정기총회**

**1월 16일(월)**

광명YWCA 제27회

**1월 23일(월)**

울산YWCA 제35회

**1월 17일(화)**

남양주YWCA 제21회

남원YWCA 제25회

안양YWCA 제30회

익산YWCA 제15회

진해YWCA 제27회

창원YWCA 제28회

천안YWCA 제27회

**1월 24일(화)**

거제YWCA 제26회

광양YWCA 제26회

대구YWCA 제93회

마산YWCA 제51회

부산YWCA 제72회

사천YWCA 제29회

서귀포YWCA 제25회

서울YWCA 제95회

수원YWCA 제48회

순천YWCA 제67회

부천YWCA 제20회

여수YWCA 제35회

원주YWCA 제50회

인천YWCA 제47회

제천YWCA 제31회

진주YWCA 제39회

춘천YWCA 제52회

충주YWCA 제32회

파주YWCA 제20회

**1월 18일(수)**

대전YWCA 제69회

제주YWCA 제50회

**1월 19일(목)**

강릉YWCA 제29회

경주YWCA 제43회

광주YWCA 제88회

논산YWCA 제16회

성남YWCA 제29회

속초YWCA 제28회

양산YWCA 제11회

안동YWCA 제20회

청주YWCA 제52회

통영YWCA 제26회

평택YWCA 제18회

**1월 25일(수)**

김해YWCA 제26회

서천YWCA 제28회

의정부YWCA 제38회

**1월 20일(금)**

동해YWCA 제29회

세종YWCA 제69회

안산YWCA 제32회

전주YWCA 제49회

**2월 4일(토)**

고양YWCA 제28회

**2월 15일(화)**

포항YWCA 제37회

**1월 21일(토)**

목포YWCA 제71회

하남YWCA 제24회

### 3월 · March

일(SUN)	월(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토(SAT)
			1	2 월레아침기도회 의정부Y 아이돌보미 양성교육(~17일)	3	4
5	6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50차 및 후쿠시마 6주기 '불의날 캠페인'</li> <li>YWCA-씨티은행 싱크머니 협약식</li> <li>광주Y 새이사공천 위원 오리엔테이션</li> <li>포항Y 반려동물 관리자 자격증반 개강</li> </ul>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발전소사교대응 TF 연구모임</li> <li>3.8세계여성의 날 진주여성대회</li> <li>서귀포Y 제2기 여성 멤버십 기본교육</li> </ul>	9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7 유엔여성자위 위원회(~20일)</li> <li>안산Y 이사 및 실무자 워크숍(~11일)</li> </ul>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탈핵퍼레이드 '나비행진'</li> </ul>
12	13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주Y 2017 회원 환영회</li> </ul>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입사무총장 연수</li> </ul>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차 전국사무총장 협의회</li> </ul>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원Y 탈핵 치량 행진</li> </ul>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포Y Y-틴 확대운영협의회</li> </ul>
19	20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부지역 회원증모 워크숍</li> <li>천안Y 회원증모 발대식</li> </ul>	22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부지역 회원증모 워크숍</li> <li>청주Y 신입자원 활동가 교육(29일)</li> </ul>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기지역위원회 회원증모워크숍</li> </ul>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원Y Y-틴 오리엔테이션</li> <li>안양Y 돌봄찬사단</li> </ul>
26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정부Y 산모 돌보미 양성교육(~31일)</li> </ul>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부지역 회원증모 워크숍</li> </ul>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단계 실무자교육(~31일)</li> </ul>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부지역 회원증모 워크숍</li> <li>대전Y 돌봄과살림 임원연수</li> <li>서울Y 이사·위원 연구모임 기본 교육</li> </ul>	31	

YWCA가 뽑은 **賞** 제21회  
좋은 TV 프로그램

# 2017 제21회 'YWCA가 뽑은 좋은 TV 프로그램상' 추천을 받습니다!

## 내용

- 정의, 평화, 생명의 가치를 잘 표현한 프로그램
- 여성인권 보호와 성평등한 사회 만들기에 기여한 프로그램
- 인간과 자연환경의 공존을 모색하고, 생명존중 의식을 높인 프로그램
- 남북통일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평화가치 구현에 기여한 프로그램
- 청소년, 청년의 건강한 가치관 정립에 이바지한 프로그램

## 대상

-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케이블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프로그램
- 2016년 3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방영된 프로그램  
(※ 2017년 2월 28일까지 전체 분량의 2/3 이상 방영된 프로그램 포함)
- 보도, 다큐멘터리, 드라마, 예능 등 모든 장르

## 시상

특별상은 늘어날 수 있음

구분		편수	상금
부문상	대상	1편	100만원
	성평등	1편	70만원
	생명평화	1편	70만원
특별상		1편	70만원
전국 YWCA 활동가들이 뽑은 좋은 프로그램		1편	70만원

## 기간

2017년 3월 13일(월)까지

## 방법

우편접수는 도착일 기준

- 추천서(홈페이지 내려받기)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이메일 중 선택 발송
- 우편: (우)04538 서울시 중구 명동길 73 한국YWCA연합회
- 팩스: (02) 774-9724
- 이메일: ywcapr@hanmail.net

## 발표

- 심사: 서류심사, 영상물 심사, 종합심사로 진행
- 발표: 1차 3월 20일경, 2차 4월 3일경(개별연락)
- 시상: 2017년 4월 20일(목) 오전11시, 서울YWCA 대강당

## 문의

- 홍보출판팀 : (02) 774-0230, ywcapr@hanmail.net





## 후쿠시마 6주기 YWCA 탈핵 주간

# NO MORE 후쿠시마! 잘가라 핵발전소!



### 후쿠시마 6주기 및 제150차 불의날 캠페인

음악과 함께하는 탈핵이야기

3월 7일(화)  
11:30

사회 장빈 | 초창가수 홍순관  
서울 명동 한국YWCA앞

### 3.11퍼레이드 '나비행진'

탈핵공동행동

3월 11일(토)  
14:00

4막 : 핵발전소-송전탑-도시의탐욕-행진  
서울 세종로 광화문 일대

## 전국 동시다발 YWCA 탈핵 캠페인

광주YWCA	3.7(화)	14시	금남로 총장우체국앞	군산YWCA	3.7(화)	12시	군산여성인력개발센터
논산YWCA	3.7(화)	7시	백제병원사거리	남양주YWCA	3.9(목)	14시	평내전철역
대구YWCA	3.7(화)	12시	대구백화점 광장	대전YWCA	3.7(화)	12시	대전YWCA회관
목포YWCA	3.7(화)	12시	목포 장미의 거리	부산YWCA	3.11(토)	14시	서면주디스타하
부천YWCA	3.6(월)	15시	탈핵부천도보순례	사천YWCA	3.7(화)	12시	삼천포 중앙시장
속초YWCA	3.8(수)	14시	속초 황소동상	수원YWCA	3.9(목)	12시	북수원홈플러스
서천YWCA	3.8(수)	11:30	여성문화센터	성남YWCA	3.7(화)	12시	야탑역광장
안양YWCA	3.14(화)	16시	안양역	안산YWCA	3.7(화)	12시	안산법원앞
양산YWCA	3.7(화)	12시	구터미널앞	울산YWCA	3.7(화)	12시	롯데호텔앞
인천YWCA	3.9(목)	16시	신세계백화점앞	의정부YWCA	3.8(수)	14시	의정부시 중앙로
전주YWCA	3.6(월)	8:30	전주KT사거리	제천YWCA	3.7(화)	12시	차없는 거리
진주YWCA	3.7(화)	11:30	경상대학교앞	창원YWCA	3.8(수)	15시	창원마산진해일대 차량행진
청주YWCA	3.9(목)	17시	성안길	충주YWCA	3.7(화)	12시	롯데마트앞
춘천YWCA	3.7(화)	14시	춘천명동 지하상가광장	파주YWCA	3.7(화)	12시	금촌역광장

## YWCA 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120개국과 한국에 YWCA를 세워주시고  
인류의 평화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니 감격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풍성한 생명살림으로 평등한 하나의 세상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책임으로 섬기며, 나누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낮은 데로 임하며,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Y운동체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어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나라의 새 역사를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한국YWCA

02.774.9702

강릉	033.651.1385	사천	055.833.2344	익산	063.857.8910
거제	055.682.4950	서귀포	064.762.1400	인천	032.424.0524
경주	054.772.8141	서울	02.3705.6000	전주	063.224.5501
고양	031.919.4040	서천	041.951.6400	제주	064.711.8322
광명	02.895.1966	성남	031.708.2503	제천	043.645.2580
광주	062.609.1300	세종	044.865.2432	진주	055.755.3463
김해	055.332.6000	속초	033.635.3523	진해	055.542.0020
남양주	031.577.7762	수원	031.252.5111	창원	055.283.9488
남원	063.632.7002	순천	061.744.7990	천안	041.575.0961
논산	041.736.7393	안동	054.854.5481	청주	043.265.3700
대구	053.652.0070	안산	031.483.6536	춘천	033.254.4878
대전	042.254.3035	안양	031.455.2700	충주	043.848.3240
동해	033.531.3007	양산	055.367.1144	통영	055.646.2547
마산	055.246.8746	여수	061.654.2161	파주	031.945.5998
목포	061.242.1611	울산	052.247.3520	평택	031.651.7701
부산	051.441.2221	원주	033.742.6090	포항	054.274.4444
부천	032.668.9700	의정부	031.853.6332	하남	031.793.7771